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

홍 희 숙 (제주대학교 교수)

I. 제주 갈옷의 정의와 연구 개요

갈옷은 감물염색한 옷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주 갈옷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감을 원료로 이용하여 감물들이 옷으로 정의한다. 제주 갈옷은 크게 전통적인 갈옷과 현대적인 갈옷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통 갈옷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자급자족으로 감물들이 입었던 옷으로 한국복식에 기본 토대를 두고 있다. 현대 갈옷은 서양복식 형태에 기본 토대를 둔 감물들이 옷을 말하며 상품화된 갈옷과 스스로 만들어 입는 갈옷 모두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갈옷의 역사를 일제강점기까지에 제한하여 고찰하였으며, 해방 이후부터 2000년 이후까지의 제주 갈옷의 특성은 제주 갈옷의 변천 양상 부분에서 다루었다.

현재까지는 제주 갈옷의 기원과 역사는 물론 갈옷의 변천 양상을 정리한 문헌이나 논문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한 매우 부족하다. 제주 갈옷의 역사는 제주에서 감물들이 옷이 입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하였으며, 확보된 자료 내에서 감물들이 옷의 종류와 형태 및 감물들이기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주 갈옷의 변천 양상 또한 이러한 점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전 연대와 다른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고문헌, 한시, 서적, 논문, 정기간행물 등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특히, 제주를 방문하였던 행정관리자, 학자, 유배인 등이 작성한 고문헌과 한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제주에 관해 기록한 다양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제주의 갈옷이나 감물염색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한국복식, 제주 갈옷과의 관련성이 추측된 몽고복식과 아시아 민속복식 연구들 또한 검토하였다.

둘째, 1920년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경향신문, 제주일보, 제주환경일보, 미디어 제주 등에 게재된 기사와 글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감물염색을 표현하는 한글과 한자의 표기(시염, 시자염, 시삽염, 시칠, 柿染, 柿子染, 柿澁染, 柿汁 등), 갈옷의 명칭(갈옷, 갈적삼, 갈중이, 갈굴중이, 갈뽕배 등), 기존 연구들에서 갈옷으로 해석된 '갈의'와 관련한 한글과 한자 표기(갈, 갈의, 단갈, 襦, 葛衣, 襦衣, 短襦 등)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제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시대별 갈옷 형태나 갈옷 차림새는 사진집 서문이나 사진 설명에 표기된 촬영 연대에 근거하였다.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는 본문에 표기하였다.

II. 제주 갈옷의 역사

1. 제주 갈옷의 기원과 용어의 구분

1) 제주 '갈옷'에 대한 전설과 추측

제주 '갈옷'의 기원이나 감물염색이 시작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 남국의 세시풍속을 소개하는 저서에는 약 700여년 전에 고기잡이 할아버지가 낚시줄이 자주 끊어짐에 낚시 줄에 감물을 들였더니 낚시줄이 더 질겨지고 고기는 더 잘 잡혔다는 하나의 전설이 등장한다.¹⁾ 조선시대²⁾와 1935년 일제강점기³⁾에 어망이나 그물을 감물(澁柿)을 들였고, 특정한 물건, 선박, 건축물에 감물을 칠하면 내구성이 높아진다는 시칠(柿漆)에 관한 기록이 있다.⁴⁾ 그러나 낚시에 감물을 들이는 것이 약 700년전인 13세기 전부터 행해졌음을 뒷받침하거나 이 시기부터 옷에 감물을 들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못하다.

제주 고씨 가문의 역사와 탐라 시대의 풍속이 서술된 『탐라성주유사(耽羅星州遺事)』에는 제주를 약 100년 동안 지배하고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나라 태조가 원나라 정권을 지원하며 끝까지 저항했던 운남국의 왕족과 그 일가를 고려시대에 제주로 이주시켰다는 내용이 있다.⁵⁾ 그리고 이 문헌에는 갈옷이 이들이 제주로 이주하던 고려시대(1382년 우왕 8년, 1392년 공양왕 4년)에 원나라 풍속과 함께 제주에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내용이 있다. 김태능이 저술한 『제주도사논고』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하나의 추측으로 서술되어 있다⁶⁾. 그러나 역사학계나 복식학계 모두에서 '갈옷'이 몽고 풍속과 함께 제주에 전래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문이나 자료들은 관찰되지 않는다. 제주도 복식을 민속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고부자도 갈옷이 몽고의 풍속이 전해진 것이라는 데 대해 그 근거가 애매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⁷⁾. 『탐라성주유사』에서 언급한 운남성(雲南省) 지역의 묘족(苗族)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전통문화와 전통복식을 잘 이어오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민속복식을 연구한 의류학자들의 논문들에서도⁸⁾ 감물염색이 언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감즙으로 칠한다' 혹은 '감을 파쇄한 감즙에 담근다'라는 의미의 시칠(柿漆)에 관한 기록이 묘족뿐만 아니라 중국 명나라 시대 말기(1596년)에 저술된 본초강목

1) 진성기(1969), 『남국의 세시풍속』, 제주민속문화연구소.

2) 崔漢綺 著, 高麗書國역총서 11 『農政會要 II』 卷10 農餘 柿, 농촌진흥청, 2006, 원문 471~473쪽.

3) 성인기, 조선일보 1935년 8월 16일

4) 동아일보 1936년 9월 16일

5) 탐라성주유사 편찬위원회(1979), 『탐라성주유사』, 제주:고씨종문회총본부, p. 125

6) 김태능(1982),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p. 42.

7) 고부자(1979),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관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4.

8) 손경자(1990), 한국, 몽고복식의 상관성 연구(I)-복식의 양식 비교를 중심으로-, 복식, 14, 21-39.

손경자(1991), 한국, 몽고복식의 상관성 연구(II)-고려시대의 몽고 침략기를 중심으로-, 복식, 16, 15-42.

박춘순(2001), 중국 남, 북방 소수민족 복식의 비교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4(1), 1-10.

박춘순(2001), 중국묘족 복식의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4(1), 11-21.

소황옥(2002), 한·몽 복식문화의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22, 91-132.

박춘순, 임영주(2003), 흉노의 복식문화 소고, 중국사연구, 25, 205-221.

김일우(2003), 고려 후기 제주, 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45-74.

배숙희(2012), 元末·明初의 雲南과 故元 後裔의 濟州 移住, 동양사학연구, 119, 197-226.

서봉하(2010), 중국 운남성 소수민족 복식의 현대화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2), 19-31.

(本草綱目)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⁹⁾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이것이 옷에 감물 들어는 문화나 제주의 감물들이기와 어떻게 관련되어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갈옷의 기원이나 유래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갈옷이 ‘감물을 들인 옷’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출처가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제주 갈옷의 역사에 대해 고찰하였다.

1382년(禡王 8) 명태조(明太祖)는 전원(前元)의 제후국(諸侯王)인 운남국(雲南國)을 평정하고 양왕(梁王)의 태자인 백백태자(伯伯太子)와 그의 아들 육십노(六十奴) 등 권속들을 탐라에 이주(移住)시켰다. 또한 1392년(恭讓王 4)에도 양왕(梁王)의 자손인 애안첨목아(愛顔帖木兒)와 그 가족을 먼저 이주한 왕족(王族)들과 함께 거주(居住)케 하였으니, 백백태자는 이조 태종초(太宗初)에 적거(謫居)에서 죽었다. 이러한 전원(前元)의 상류사회(上流社會) 인물들이 제주에 우거(寓居) 또는 영주(永住) 하므로써 그들의 문화와 풍속(風俗)이 전래(傳來) 되었으며 특히 감물(槲)을 무명에 들여 만든 「갈옷」도 이때부터 전해진 것이라 한다.

- 탐라성주유사 편찬위원회(1979), 『탐라성주유사』

우왕(禡王) 8년에는 명군(明軍)에 의해 정복(征服)된 전원(前元)의 제후왕(諸侯王)인 운남양왕(雲南梁王)의 태자(太子)와 그의 자(子) 육십노(六十奴)를 명태조(明太祖)가 제주(濟州)에 보내어 이곳에 안치(安置)하였고 또 공양왕(恭讓王) 4년에도 양왕(梁王)의 손자(孫子) 4인(人)을 탐라(耽羅)에 이천(移遷)하여 백백태자(伯伯太子)와 더불어 친족(親族)끼리 서로 완취거래(完聚去來)하게 하였다. 육십노는 공양왕 3년에 제주에서 죽었고 백백태자는 이조태종초(李朝太宗初)에 역시(亦是) 제주에서 적사(謫死)하였다. 이 운남인(雲南人)들은 양왕의 자손들 이외에도 화자(火者)와 복니(卜尼)를 비롯한 많은 종자(從子)들이 따라와서 있었으므로 제주에 비로소 묘족(苗族)이 살기 시작했던 것이며 이들이 풍속(風俗)인 갈옷(감물들인 갈색 옷)도 제주에 전해진 듯하다.

- 김태능(1982), 『濟州島史論攷』

사리때가 지나고 조곰이 되어민어가 잘 잡히지안는 때나 폭풍이 심한 때에는 배를 포구에 대고 그물에 다 감물(澁槲(삼시))을 들이여 돛대에 거러노코 언덕우헤 꺾딱지카티 막을 처논 술집문을 두다리여 열근히 몇잔먹어 덧뵈분툼을 타서 소처올르는 『흙씩』을 위안한다.¹⁰⁾

- 성인기, 조선일보 1935년 8월 16일

2) 갈옷과 갈의의 용어 구분

한자로 표기된 ‘갈의(葛衣, 襦衣)’를 감물염색한 ‘갈옷’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갈옷의 역사를 이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갈옷의 역사를 규명하기에 앞서 ‘갈옷’과 ‘갈의(葛衣, 襦衣)’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조선시대 제주의 사회상, 경제 상황, 풍속, 자연환경을 기록한 문헌들 중 조선 중기(선조 34년, 1601년)에 안무어사로 제주를 방문하고 6개월 동안의 일상을 기록한 『남사록(南槎錄)』에는 최부(崔溥)의 35절(崔溥詩三十五絶) 한시가 실려 있다.¹¹⁾ 35절 한시는 최부(崔溥)가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에 1487년(성종 18년)

9) 허복구, 박지혜, 『근대 제주도의 감 문화와 감물염색』, 세오와 이재, 2013.

10) 성인기, 조선일보 1935년 8월 16일

11월에 도착하여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경험한 제주의 역사와 풍물을 압축한 대서사시로 이 시에 “革帶芒鞋葛織衣(혁대망혜갈직의)”란 문구가 있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는 이 문장에 제시된 ‘葛織衣(갈직의)’를 갈옷이라고 지칭하는 한편 “감잎을 물들여 지은 옷”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갈의(葛衣)’와 감물염색한 ‘갈옷’을 혼동하여 제시하고 있다.¹²⁾ 이 문장에 나타난 ‘葛織衣(갈직의)’는 ‘침으로 짠 베옷’을 뜻하는 것으로 감물염색한 ‘갈옷’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갈(葛)’은 ‘침 갈’ 혹은 ‘침으로 짠 베 갈’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침을 캐어 그것으로 베를 짠다는 것은 중국의 주(周)나라 초기부터 춘추시대(春秋時代) 초기까지 황하 중류지방에서 전해지는 민요를 정리하여 305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는 시경(詩經)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시경의 국풍 1권 주남(周南)에는 “침덩굴 뺨어, 골짜기로 뺨어가네, 잎들이 뽀뽀하여라, 베어내고 삶아내어, 가는 베 굵은 베 만드네, 옷 입고 좋아하네”라는 뜻의 “葛之覃兮，施于中谷(갈지담혜, 이우중곡), 維葉莫莫，是刈是漙(유엽막막, 시예시호), 爲絺爲綌，服之無斃. (위치위격, 복지무역)”¹³⁾이란 문구가 있다. 이러한 문장들을 통해 ‘갈(葛)’이 사용된 용례를 볼 때 ‘갈의(葛衣)’는 침으로 짠 굵은 베옷을 의미한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최한기가 1830년경에 농촌생활 전반에 대해 저술한 『농정회요』 2권에도 침(葛)은 야생인 것도 있고 집에서 가꾸는 것도 있는데 봄에 싹이 나오면 덩굴이 1-2길이나 뻗어 나가고 색상은 자주색이며 수확한 다음에는 다듬어서 고운 갈포(絺)¹⁴⁾나 거친 갈포(綌)¹⁵⁾를 만들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¹⁶⁾ 따라서 ‘갈의(葛衣)’는 침덩굴을 다듬어서 만든 실로 짠 갈포(葛布)를 이용해서 만든 옷으로¹⁷⁾ 중국의 춘추시대 이전부터 등장했고, 한국의 조선시대에도 이용되었던 옷인 ‘침으로 짠 베옷’을 뜻한다.

한편, ‘갈(襪)’은 ‘갈색 갈’ ‘베옷 갈’ ‘굵은 베 갈’ ‘털옷 갈’을 일컫는 한자이며, ‘갈의(襪衣)’는 ‘갈색 옷’ ‘굵은 베로 짠 옷’ ‘모직물의 털옷’을 의미한다. 중국의 당나라 역사와 함께 주변국에 대해 기록한 구당서(舊唐書)의 동이열전(東夷列傳)에 나와 있는 고구려(高句麗) 부분에서 “國人衣襪戴弁(국민의갈대변), 婦人首加巾幘(부인수가수귀)”¹⁸⁾ 문장이 관찰된다. 신당서(新唐書)의 동이열전에서도 고구려 사람에 대해 기록한 “庶人衣襪(자인의갈), 戴弁(대변), 女子首巾幘(여자수수귀)”¹⁹⁾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갈(襪)’은 “굵은 베로 만든 옷”을 해석되며²⁰⁾ 감물들인 바지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襪衣(갈의)’를 ‘감옷’ 즉 감물들인 갈옷의 전신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²¹⁾. 신당서의 동이열전 신라(新羅) 부분에도 “男子襪袴(남자갈고), 婦長襦(부장유)”라는 문장이 있는데, ‘갈고(襪袴)’는 신라의 일반적인 여성 복식과 대비시킨 남성 복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신라 백성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굵은 베(襪)’로 만든 남자 바지를

11) 김상헌 저, 김희동 역저,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12) 임준성(2010). 최부의 탐라시 35절 연구, 도서문화, 36, 345-369.

13) 시경의 > 국풍 > 1권 주남(周南)

14) 고운 갈포(絺)-찰베 치

15) 거친 갈포(綌)-찰베 격

16) 崔漢綺 著, 高농서국역총서 11 『農政會要 II』 卷10 農餘 柿, 농촌진흥청, 2006, 원문 471-473.

17) 이규태, 조선일보 1993년 3월 18일

이규태(1991), 재미있는 우리의 옷이야기, 서울: 기린원.

18) 구당서 > 고구려

19) 신당서 > 고구려

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21) 김인호(1997), 『한국 제주 역사 문화 뿌리학(상)』, 서울: 우진출판사

의미하는 것으로²²⁾ 감물들이 바지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갈(襦)’을 ‘베 옷’의 의미로 사용한 사례는 조선시대의 제주에 대해 설명하는 『南溟小乘(남명소승)』문헌에서도 관찰된다.²³⁾ 『남명소승』은 임제(林梯)가 조선시대(선조 10년) 1577년 11월 제주 목사인 부친을 방문하여 4개월 동안 제주에 거주하는 동안 제주의 지리, 기후, 역사, 경승, 풍속, 언어, 물산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이 저서에서 제주목사의 질문에 노인이 “베옷 한 벌과 가죽 옷 한 벌로 여기서 삼사십년 살아 왔답니다”²⁴⁾라고 응답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것은 “無營無欲(무영무욕), 一裘一褌(일구일갈자) 或三十年(혹삼십년) 或四十年於此矣(혹사십년어차)”라는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裘(구)’는 겨울철에 착용하는 짐승의 털가죽으로 안을 댄 가죽옷(갓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褌(갈)’은 이와 대비되는 따뜻한 계절에 입는 짧은 베 옷을 의미한다.

또한, 갈(襦)이라는 한자에는 ‘털옷 갈’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서 토끼의 털로 만든 모포나 모직물을 토갈(兔褌)이라 일컫고, 낙타의 털로 만든 모포(毛布)를 타모갈(駝毛褌)로 표기한다. 즉 褌(갈)과 褌衣(갈의)는 서민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입었던 옷으로 등급의 모직물(褌)로 만든 짧은 길이의 포(袍) 형태의 의복(短衣)이다.²⁵⁾ 신라시대²⁶⁾와 고려시대²⁷⁾에는 귀족들이 고급 모직물인 ‘계(鬮)’로 만든 옷을 착용한 반면 벼슬이 없는 일반 남성이나 천한 계급의 사람들(賤士)은 짐승의 털(毛布)로 제작한 하등급의 모직물인 ‘갈(褌)’이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단의(短衣)인 ‘갈(褌)’을 착용하였다.

갈(褌)을 털옷의 의미로 사용한 사례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풍속을 기록한 『시경(詩經)』이나 중국 송나라 역사와 주변국에 대해 기록한 『宋史(송사)』 등의 고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시경의 국풍 15권 빈풍(邠風)에는 “동짓달에 찬바람 불고, 설달에는 매섭게 추워진다. 옷과 털옷이 없으면, 어찌 한해를 넘길까”를 의미하는 “一之日鬻發, 二之日栗烈(일지일필발, 이지일울열), 無衣無褐, 何以卒歲(무의무갈, 하이졸세)”²⁸⁾ 라는 문장이 있다. 송사(宋史)의 외국열전(外國列傳)에 나와 있는 고려(성종 11년, A.D. 992년)에 관한 내용에는 “縑袍短褌(온포단갈), 玉粒桂薪(옥립계신), 堪憂食貧(감우식빈), 若爲卒歲(아위졸세)”라는 기록이 있다.²⁹⁾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이 문장을 “솜옷과 짧은 털옷을 입고 玉粒(옥립)과 桂薪(계신)에 대한 걱정 속에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유학 기간을 마칠 듯 하였습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³⁰⁾ 여기서도 문맥상 ‘온포(縑袍)’는 솜을 넣어서 만든 두루마기 형태의 의복인 포(袍)를 뜻하고, ‘短褌(단갈)’은 낮은 등급의 모직물로 만든 길이가 짧은 털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六十年前(육십년전) 則屢被官家之驅使(직누피관가지구사) 而老除之後(이로제지후) 始得安逸(시득안일) --
饑粥之食(전죽지식) 隨歲豐歉(수세풍겸) 動息之節(동식지절) 隨日出入(수일출입) 無營無欲(무영무욕) --

22) 신당서 > 신라

23) 제주문화원, 『역주 제주고기문집(濟州古記文集)』, 『남명소승』, 2007

24) 제주문화원(2007), 앞의 책. 한글 번역본에는 ‘솜옷’으로 번역되어 있음. 솜옷은 기본적으로 목화를 소재를 하는 것으로 가죽옷, 털옷, 베옷과는 다른 옷임

25) 박순지, 이춘계(1994), 명칭으로 본 모직물의 발달-고대부터고려시대까지-, 복식, 21, pp. 19-30.

26) 김동욱(1971), 흥덕왕 복식 금제의 연구-신라말기 복식 재구를 중심으로-, 동양학, pp.7-48.

27) 박순지, 이춘계(1994) 앞의 논문

28) 시경 > 국풍 > 빈풍 > 7월

29) 송사 > 외국열전 > 고려 > 성종 11년, A.D. 992

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裘一褙者(일구일갈자) 或三十年(혹삼십년) 或四十年於此矣(혹사십년어차의)

- 임제(林梯), 『남명소승(南溟小乘)』³¹⁾

풍년 또는 흉년에 따라 밥이 되건 죽이 되건 먹으며, 해가 뜨고 지는 데 따라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 쉬곤 하지요. 일을 일부러 벌이지 않고 욕심도 내지 않으며, 벼웃 한 벌과 솜웃 한 벌로 여기서 삼사 십년 살아 왔답니다.

- 제주문화원, 『역주 제주고기문집(濟州古記文集)』

한편, 중국 송나라 사신인 서긍이 고려(인종 1년, A.D. 1091-1153년)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도 ‘短褙(단갈)’이란 한자가 관찰된다. 즉 고려의 사회적 신분과 풍속 및 생활용품에 대해 설명하는 19권(卷第十九 民庶)에 “短褙被體(단갈피체), 下無袴襠(하무고유)”³²⁾라는 문장이 있다. 이것은 “짧은 갈옷(褙)을 몸에 걸치지만, 아래에는 바지(袴襠)를 입지는 않는다”라고 해석되고 있다.³³⁾ 그러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고려에는 ‘모시(紵)와 삼(麻)을 스스로 심어 많은 사람들이 벼웃을 입으며’라는 내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장에 언급된 ‘단갈(褙)’은 앞에서 언급한 짧은 길이의 굵은 벼웃이나 하등급의 모직물 소재의 털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지며, 감물염색한 갈옷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요약하면, 한문으로 표기된 葛衣(갈의)는 ‘참을 캐어 삶아서 실을 뽑아 베를 짜고 그것으로 만든 칩 벼웃’을 의미한다. 한문으로 표기된 褙衣(갈의)’는 의미가 중의적이어서 ‘굵은 베로 짠 벼웃’ 혹은 ‘동물의 털로 재직하여 거칠고 두꺼운 하등급의 모직물로 만든 옷을 의미하며, 동물의 털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털옷’으로 표현되기도 한다³⁴⁾. 褙衣(갈의)가 둘 중 어떤 뜻을 갖는지는 한문이 표기된 문맥과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이 감물염색한 ‘갈옷’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물염색한 ‘갈옷’의 역사를 ‘감(柿), 감즙(柿汁), 감물(柿水), 시염(柿染), 염색(染色), 시칠(柿漆) 등의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갈(葛, 褙)’이나 ‘갈의(葛衣, 褙衣)’라는 글자인 경우, 감물염색을 의미하는 한자들과 연결되어 사용되었는지에 관심을 두고 ‘갈옷’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3) 감물과 감물들이기 용어와 한자 표기

제주 사람들은 감즙염색을 ‘감물들이기’라고 표현한다. ‘감물’은 감에서 나오는 물을 의미한다. ‘감물’은 한자로 감나무를 의미하는 한자인 ‘시(柿)’와 과실에서 베어나오거나 짜낸 액체를 의미하는 ‘즙(汁)’을 합하여 ‘시즙(柿汁)’으로 표기한다. 192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신문에 ‘감물’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총 53건이었고, 이 중에서 감물염색과 관련된 것은 42건이었다. 한글로 ‘감물’이라고 표기된 경우도 있었지만, 한글과 한자를 함께 써서 ‘감물(柿汁)’이라고 표기하거나 ‘柿汁’이란 한자만 사용해서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동아일보에 옷에 묻은

31) 제주문화원, 『역주 제주고기문집』, 2007, 앞의 책; 괄호 안의 한글 음은 필자가 추가함

32) 고려시대 > 宣和奉使高麗圖經(선화봉사고려도경) > 卷19 > 백성(民庶) > 주인(舟人)

3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34) 박순지, 이춘계(1994), 앞의 논문

감즙을 ‘감물’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아³⁵⁾ 감물이란 용어는 일제강점기에도 사용되었으며, 이 용어는 제주와 관련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염색과 관련하여 ‘감물’이란 용어가 사용된 기사들인 경우, 절반 이상이 제주와 연관되어 있었다. 감물을 한자 그대로 표기하여 ‘시수(柿水)’라고 표현한 사례도 관찰된다. 즉 조선시대에 제주 목사로 재임하였던 (1765년 8월-1766년 6월) 윤시동이 저술한 『증보탐라지』에 ‘푸른 색의 털 익은 감을 부수어 만든 감물로 물들인 베옷’이라는 의미의 ‘유이단갈상염청시수(又以短褐嘗染靑柿水)’란 기록이 있다.³⁶⁾ ‘시수(柿水)’라는 용어는 1929년 동아일보에서도 관찰된다.³⁷⁾ ‘감물(柿水)들인 듯한 바지 저고리 한 벌’을 묘사할 때 ‘감물’이란 한글과 ‘시수’란 한자가 함께 표기되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고문헌에 표기되었던 ‘柿水’라는 한자 표기가 순 우리 말로는 ‘감물’을 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물’이란 용어는 조선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풋감을 부수고 으깨어 얻은 액체를 ‘감즙’이라고 하지 않고 ‘감물’이라고 한다.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감물’이란 용어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제주에서 전승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감물들이기’는 물들 염(染)을 써서 시염(柿染)이라고 표기한다. 시염(柿染)이란 용어는 조선시대의 농학자인 유중림(柳重臨)이 1766년 경 저술한 『增補山林經濟(증보산림경제)』³⁸⁾와 실학자 최한기(崔漢綺)가 1830년 경 조선후기 농촌생활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農政會要(농정회요)』³⁹⁾ 저서에서 감물염색법(柿染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감물들이기’는 뚝은 감으로 물들인다는 의미로 뚝을 ‘삽(澁)’을 추가하여 시삽염(柿澁染)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감나무의 잎이 아닌 감나무 열매로 염색한다는 의미에서 열매 ‘자(子)’를 추가하여⁴⁰⁾ ‘시자염(柿子染)’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일부 저서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시염(柿染)’을 감나무 잎으로 염색하거나⁴¹⁾ ‘시자(柿子)’를 감의 씨를 이용하여 염색하는 것으로 해석한 경우가 관찰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신문기사들에서는 柿染(시염)이나 柿子染(시자염)이란 한자 용어가 관찰되지 않았다. 시자염(柿子染)은 주로 대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소개된 바 있다.⁴²⁾ 감물염색에 대한 한자 표기들 중에서 시삽염(柿澁染)이나 시삽(柿澁)이란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신문, 감물염색에 관한 일본어 문헌, 일본 학회지에 실린 연구논문들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192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신문에서 관찰된 ‘시삽(柿澁)’이란 한자는 총 9건이었는데, 모두 1928년부터 1946년 12월 이전에 게재된 신문기사들에서 사용되었다. 시삽(柿澁)과 시삽염(柿澁染)에 대한 신문기사들은 주로 뚝은 감의 채취, 생산, 부업, 활용 등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제주를 조사했던 겐쇼에이스케(善生永助)의 저서 『제주도생활상태조사』⁴³⁾ 및 이즈미 시이치(泉靖一)의 저서 『제주도(濟州島)』⁴⁴⁾에서도 감물염색은 시삽(柿澁)과 시삽염(柿澁染)으로 표기되어 있다.

35) 동아일보, 1930년 11월 19일

36) 尹善東 著 金永吉 譯註, 國譯『增補耽羅志』, 濟州特別自治道 濟州文化院, 2016.

37) 동아일보, 1929년 11월 24일

38) 柳重臨 著, 高농서국역총서 4『增補山林經濟 I』卷之三 種樹 柿, 농촌진흥청, 2003.

39) 崔漢綺 著(2003), 앞의 책

40) 허복구, 박지혜, 『근대 제주도의 감 문화와 감물염색』, 광주광역시: 세오와 이재, 2013.

41) 柳重臨 著, 高농서국역총서 4(2003), 앞의 책

42) 허복구, 박지혜(2013), 앞의 책

43) 겐쇼 에이스케 저, 홍성목 역저, 『제주도생활상태조사』보고서, 제주: 제주시우당도서관, 2002.

감물염색을 시칠(柿漆)이란 용어로 표기한 사례도 있다. 시칠(柿漆)은 감 혹은 감나무를 일컫는 ‘시(柿)’와 옷칠하다는 의미를 가진 ‘칠(染)’로 구성된 용어이다. 시칠(柿漆)이란 용어는 『농정회요』에 등장하는 “搗碎浸汁謂之柿漆(도쇄침즙위지시칠) 可染罽毼諸物(가염증선제물)” 기록에서 보듯이 감즙에 담그는 상황에서도 사용되지만, 물건이나 물체의 표면에 감즙을 칠하는 경우에까지 사용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영조시대에 살았던(1764-1845) 실학자인 서유구(徐有榘)가 편찬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⁴⁵⁾ 제2권 ‘섬용지(贍用志)’에도 감물의 제조나 감물의 이용법과 관련한 설명에서 시칠(柿漆)이나 시칠제법(柿漆造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신문기사 검색에서도 ‘柿漆(시칠)’이란 한자 용어가 1924년과 1938년 동아일보에서 2건 관찰되었다. 즉 제주여행에 대해 작성한 글에 “下衣를 柿漆에 染하여 衣하는 故로 감을 食用에 供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⁴⁶⁾. 그리고 기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원료로서 시칠(原料柿漆) 제조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글에도 “朝鮮內에서 만히 生産되는 柿漆”이라는 문구가 나온다⁴⁷⁾.

요약하면, 감물염색을 의미하는 ‘감물들이기’는 한자로는 시염(柿染), 시자염(柿子染), 시삽염(柿澁染), 시칠(柿汁)로 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자 표기는 식물과 의류의 염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재료나 물건을 염색하거나 염료를 칠하는 데도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한 결과,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염색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이전의 자료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2. 조선시대의 제주 갈옷 문화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염색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한 기록은 조선시대 자료에서만 찾아 볼 수 있었다. 즉 윤봉조의 『포암집(圃巖集)』과 윤시동의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2건에서 ‘감물들이기 옷’에 대한 표현이 있다. 윤봉조(1680년-1761년)는 조선 후기 문인이자 학자였으며, 1728년에서 1729년까지(영조 4년-5년) 약 2년 동안 제주 정의현에 유배되었다.⁴⁸⁾ 제주에 유배되었을 당시에 지은 ‘도중잡영(島中雜詠)’이란 한시(漢詩)가 『포암집』에 들어있다. 윤봉조의 ‘도중잡영’ 한시의 내용을 통해 조선시대에 제주에 감물들이기 문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도중잡영’ 한시에는 “凌雨柿染衣(릉우시염의), 冒雪皮爲帽(모설피위모)”라는 문장이 있다. 여기서 ‘凌(릉)’은 능가함 혹은 정도가 지나침을 의미하는 한자로, 릉우(凌雨)는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오는 때를 말한다. 모설(冒雪)은 눈을 무릅쓴다는 뜻이다. 따라서 ‘릉우(凌雨)’라는 단어를 ‘모설(冒雪)’에 대비시키면 문맥상 릉우(凌雨)와 모설(冒雪)은 ‘장마지는 여름’과 ‘추운 겨울’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시에서 주목할 부분은 ‘柿染衣(시염의)’이다. 이것은 옷에 감물을 들인다는 뜻으로 감물을 들이

44)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 『濟州島 V』 제주: 경신인쇄사, 2010.

이즈미 세이치 지음, 김중철 옮김, 『제주도: 1935-1965』 서울: 여름언덕, 2014.

45) 풍석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섬용지 2』, 풍석문화재단, 2016, p. 310

46)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7.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47) 장현철, 동아일보 1938년 9월 16일

4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는 대상이 직물(布, 綿, 織物)이 아닌 옷(衣)임을 의미한다. ‘도중잡영’ 한시에 나온 이 문장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에서는 추운 겨울에는 가죽으로 만든 ‘가죽감태’ 모자를 착용하고, 여름에는 옷에 감물을 들여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에 안무어사로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尙憲)이 1601년 8월부터 1602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제주에 머물면서 보고 들은 바를 일기체 형식으로 작성한 『南槎錄(남사록)』에는 조선시대 당시 제주 성안에는 감이 많이 있으나 크기가 작고 씨가 많으며 맛이 없다는 기록이 있다.⁴⁹⁾ 이것은 조선시대 제주에는 감이 자생했으며, 이 감은 식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웠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조선시대 제주의 감물들이기에는 제주에서 자생하는 이 작은 감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南槎錄(남사록)』에 제시된 제주에서 자생하는 감의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는 ‘도중잡영’ 한시가 지어지기 훨씬 이전 부터임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도중잡영’보다 앞선 고문헌들의 발굴과 이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진다면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 역사는 이보다 더 앞설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중잡영’ 한시가 지어진 시기가 윤봉조가 제주에 유배되었을 때(1728-1729)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시염법(柿染法)이나 시칠제법(柿漆造法)이란 용어로 감물염색에 소개하고 있는 유증림의 『증보산림경제』(1766년), 최한기의 『농정회요』(1830년), 서유구의 『임원경제지』(1806-1836)가 저술된 시기보다 앞선 것이다. 따라서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가 다른 지역에서의 감물염색보다 더 빨리 성행했을 가능성도 높다. 다른 지역에서 행해졌던 감물들이기와 연관성 파악은 다른 지역에 관한 더 많은 사료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林臥不防虎(임와불방호) 숲에 누워 있어도 호랑이 걱정 없고
 戶開不警盜(호개불경도) 문 열려 있어도 도둑 경계 필요 없네
 牧兒 驅牛去(목아구우거) 목동이 소 몰고 나가면
 嘯聲夜四到(소성야사도) 휘파람 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오고
 寒風振哀響(한풍진애향) 차가운 바람이 구슬프게 골짜기에 불어오는데
 村徑葉不掃(촌경엽불소) 마을 길은 낙엽 쌓여도 쓸지 않네
 凌雨柿染衣(릉우시염의) 장맛비 올 때는 옷에 감물들이고
 冒雪皮爲帽(모설피위모) 추운 겨울에는 가죽으로 모자를 만드네
 牛肥載薪多(우비재신다) 살진 소에 땔나무 많이 실어
 歸及蕪夜(귀급설야조) 돌아와 아궁이에 불이나 때어야겠네
 今夜善飼牛(금야선사우) 이 밤 소나 잘 먹여
 秋稼滿畦倒(추가만휴도) 가을 벼 논 두둑 가득하겠네
 田家歲功成(전가세공성) 농가 한해 농사 이루었으니,
 喜色動相告(희색동상고) 기쁜 낫빛으로 서로 알리며 다니겠지
 獨有離家客(독유리가객) 홀로 집 떠난 나그네 되어
 眼穿望鄉耗(안천망향모) 눈은 뚫어지게 고향마 바라보네
 滿目非我故(만목비이고) 눈에 가득 보이는 풍경은 내 고향이 아니니
 歸心農旆蠶(귀심노정독) 돌아가고픈 마음 깃발처럼 나부끼네

- 윤봉조, 『포암집(圃巖集)』, ‘도중잡영(島中雜詠)’ 10번째(其十)의 한시⁵⁰⁾

49) 김상헌 저, 홍기표 역주, 『남사록』, 제주문화원, 2011.

50) 심규호, 주기평, 최석원, 송인주, 김규태, 『제주 한시 300수』, 제주:제주학연구센터, 2022.

윤봉조의 ‘도중잡영’ 한시를 통해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가 제주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조선 후기의 문신이었던 윤시동의 저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의 내용을 통해서도 제주의 감물들이기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다. 윤시동은 1729년에 태어나서 1797년까지 살았던 학자로 1765년 8월부터 1766년 6월까지(영조 41년-42년) 약 1년 동안 제주 목사로 재임하였다.⁵¹⁾ 『증보탐라지』는 제주의 생활상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이 문헌에는 조선시대 목화와 마의 재배 상황, 제주에서 사용되었던 직물의 유형, 제주 사람들이 착용했던 의복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의복의 종류로는 개가죽 옷, 오소리 가죽 모자, 가죽 행전, 가죽 버선, 감물들이는 옷이 제시되었다. 감물들이는 옷에 대해서는 “又以短褌嘗染青柿水(우이단갈상염청시수) 其色赤黑(기색적흑) 雖旬月不濯(수구월부습) 曾不汗汗(증불한오) 農家尤爲好着(농가우위호착)”라고 기록하고 있다.⁵²⁾ 이 문장을 통해 조선시대 감물들이는 원료, 감물들이는 대상, 감물들이는 소재, 감물들이는 옷의 색상과 기능에 대해 엿볼 수 있다.

즉 ‘染青柿水(염청시수)’라는 문구를 통해 조선시대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염색의 원료는 푸른색의 털 익은 풋감이며, 이 풋감에서 짜낸 액체인 감물(柿水)을 이용하여 염색함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풋감을 육지로부터 가져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감물들이는 원료는 제주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갈(短褌)’이란 단어를 통해 조선시대 제주에서 감물을 들였던 대상은 천이 아닌 옷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특히 ‘大靜面只有若干木花(대정면지유약간목화) 而結花甚小(이결화심소) 與陸地大異(여육지대이) 峽村之民畊麻織布(협촌지민경마직포) 寒煖(煖)是資(한환/난시자)’라는 문장을 통해 목화가 경작되는 지역이 한정적이고, 목화꽃이 열리는 양은 적지만 마(麻)는 산골 마을에서도 재배되어 여름과 겨울 모두 삼베로 짠 옷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제주에서는 면직물이 귀하여 무명보다 주로 삼베로 짠 옷에 감물을 들였던 것으로 파악된다.⁵³⁾ 그리고 ‘기색적흑(其色赤黑)’이란 문구로 볼 때 조선시대에 감물들이는 옷의 색상은 검붉은 색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수구월부습(雖旬月不濯), 증불한오(曾不汗汗)’는 감물들이는 옷의 장점이나 기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 따르면 제주사람들은 조선시대부터 감물들이는 옷이 자주 세탁하지 않아도 더러움을 안탈 만큼 땀과 오염에 강한 옷이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물들이는 옷은 ‘농가우위호(農家尤爲好着)’란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농가에서 농부가 밭일할 때 입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조선시대 제주에서 감물들이는 옷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즉 “又以短褌嘗染青柿水(우이단갈상염청시수)” 문장에 등장하는 ‘단갈(短褌)’이 의미하는 바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갈의(褌衣)는 중의적인 의미(베옷, 모직물 털옷)를 보이는 한자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여기서 단갈(短褌)은 감물들이기가 가능한 소재여야 하므로 ‘삼베로 짠 옷’이라는 점이나 ‘짧은 길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감물을 들이는 단갈(短褌)의 형태는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단갈(短褌)을 제주 사람들이 농사일할 때 입는 짧은 길이의 바지인 ‘베잡방이’로 해석하기도 하지만⁵⁴⁾ 삼베로 만든 갈의(褌衣)의 일종으로 짧은 포(袍)

허복구·박지혜, 『근대 제주도의 감 문화와 감물염색』, 세오와 이재, 2013.

5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2) 尹善東 著, 金永吉 譯註, 國譯『增補耽羅誌』, 濟州特別自治道 濟州文化院, 제주: 제이에스디자인 2016.

53) 尹善東 著, 김영길 역(2016), 앞의 책

54) 尹善東 著, 김영길 역(2016), 앞의 책

형태의 의복(短衣)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⁵⁵⁾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37년 제주를 관찰한 이즈미 세이치가 남녀 모두 저고리와 바지에 감물을 들여 입는다고 보고한 점을 고려하면, 감물을 들이는 단갈(短襦)은 베로 만든 짧은 길이의 상의 혹은 하의 모두를 통칭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장에 등장하는 단갈(短襦)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료나 더 많은 사료를 필요로 하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大靜面只有若干木花 而結花甚小 與陸地大異. 峽村之民耕麻織布 寒煖是資. 間有襦納者 以破布代絮. 男則身着狗皮衣 頭戴土豬皮帽子 下着皮行纏俗稱發乃皮襪履, 乃得禦寒. 無此 則指爲疲殘. 又以短襦嘗染青柿水, 其色赤黑, 雖旬月不濯 曾不汗汗, 農家尤爲好着.⁵⁶⁾

- 尹蓍東 著『增補耽羅志』

“대정 면에서만 약간씩 목화를 재배한다. 그러나 꽃을 맺음이 매우 적어서 육지와는 크게 다르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매투(麻)를 재배하여 베를 짜서 이것으로 추위와 더위(寒煖)⁵⁷⁾에 의지한다. 간혹 저고리에 솜을 대신하여 베를 찢어서 넣기도 한다. 남자는 몸에는 개가죽 옷을 입고 머리에 오소리 가죽 모자를 쓰며, 발에 가죽 행전을 차고 가죽 버선을 신어서 추위를 막는다. 이것이 없으면 발가락이 병 들고 혈이 터지게 된다. 또 푸른색의 털 익은 감을 부수어 만든 감물을 이용하여 베잠방이에 물들이면⁵⁸⁾ 그 색이 검붉은데, 비록 열흘이나 한 달을 빨지 못해도 땀으로 더러워지지 않으니 농가에서 더욱 즐겨 입는다”⁵⁹⁾

- 윤시동 저, 김영길역(2016), 『증보탐라지』

요약하면, 제주에는 조선시대 후기 이전부터 감물들이는 문화가 있었으며, 감물들이는 시기는 주로 여름이었다. 감물을 만드는 원료는 제주에서 나는 털익은 풋감이었으며, 감물을 들이는 옷은 주로 베로 만든 옷이었고, 감물들이는 옷의 색상은 검붉은 색이었으며, 감물들이는 옷의 장점은 빨지 않고 오래 입어도 땀으로 더러워지지 않는 점이다. 조선시대 제주에서 감물들이는 옷은 주로 농가의 농부들이 착용하였다.

3. 일제강점기의 제주 갈옷 문화

제주에서 일제강점기 후반까지도 감물염색이 성행했다는 사실은 진쇼 에이스케가 1927년에서 1929년까지 2년 동안 제주를 방문하여 관찰한 내용을 작성한 『제주도생활상태조사』, 1937년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을 저술한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濟州島)』, 1924년부터 1938년까지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린 6건의 제주기행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두 문헌들과 제주기행문을 통해 파악된 제주의 감물들이기 문화에 대해 제시하였다.

55) 김동욱(1971), 앞의 논문

56) 尹蓍東 著, 김영길 역(2016), 앞의 책

57) 원본은 한환(寒煖)으로 추위와 더위를 의미하는 한난(寒燠)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발레(發乃)는 방한용으로 개가죽을 사용하여 각반처럼 만든 물건을 이르는 제주 방언이다.-역자 붙임

58) “短襦”을 하의에 국한하여 베잠방이로 해석하였음

59) 尹蓍東 著, 김영길 역(2016), 앞의 책

1) 감물들이 옷의 종류와 형태

『제주도생활상태조사』보고서는 1929년에 편찬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제주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제주는 육지와 매우 달랐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겐쇼 에이스케에게 촉탁하여 『제주도생활상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겐쇼 에이스케가 일본어로 작성하였고 1929년 당시 홍성목이 이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조사한 『제주도생활상태조사』 보고서에는 제주에는 흰색 옷이 많은 육지에 비해 감물들이 적갈색 옷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감물염색이 조선 시대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제주에서 성행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제주도생활상태조사』보고서에는 당시 제주 사람들이 착용했던 의복의 종류들은 제시되었지만, 어떤 종류의 옷에 감물을 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겐쇼 에이스케는 “柿澁を施したる赤褐色のものが多い” 문장을 통해⁶⁰⁾ 당시 성인 남녀가 여름에 입는 홑겹의 삼베 옷들 중에는 감물들이 붉은 갈색의 옷이 많았다고만 기록하였다.

남자의 복장은 육지부의 복장과 큰 차이는 없지만 성년 남자로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바지(袴衣), 저고리(儒衣), 토시(吐手), 버선(襪), 대님(單衿), 허리끈(腰帶), 두루마기(袍衣)를 입고 봄 가을에는 하양 면제품의 겹옷, 여름에는 삼베의 홑옷(감물을 들인 붉은 갈색옷이 많다), 겨울에는 하얀 누비 솜옷을 입는다. -중략- 색상은 흰색이 가장 많고, 그 밖에 쥐색, 갈색, 검은색 등이 있다.

성년의 여자로서 농업 혹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고리(儒衣), 치마(裳), 바지(袴衣), 속곳(襦), 버선,⁶¹⁾ 허리끈(腰帶) 등을 사용하고 봄, 가을에는 흰천으로 된 겹옷, 여름에는 삼베로 된 홑옷(감물로 염색한 적갈색옷이 많다), 겨울에는 하얀 솜옷을 입고 있다. -중략- 의복의 재료는 비단 면 무명 삼베 등을 쓰고 색배합은 치마는 흰색(白), 곤색(藍), 검정(黑), 청색(靑) 및 갈색(茶色) 등으로 하고 그 외에는 거의 흰색이다.

- 겐쇼 에이스케 저, 홍성목 역(2002), 『제주도생활상태조사』

제주에서 감물들이는 옷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헌은 1937년에 제주를 방문하고 20일간 제주의 생활상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濟州島)』이다.⁶²⁾ 이 문헌 또한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1966년에 일본에서 발표된 후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제주도(濟州島)』 문헌에 따르면 1937년 당시 제주 사람들은 푸른 감을 돌 위에서 빵아 물을 약간 섞은 것에 무명 옷이나 삼베 옷을 담가 감물을 들였다.⁶³⁾ 이즈미 세이치는 감물을 들인 옷을 柿澁衣類(시삽의류)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감물들이 옷의 종류로 柿澁襦衣(시삽의류), 柿澁男子袴衣·中衣(시삽남자고의·중의), 柿澁女子袴衣(시삽여자고의)를 제시하였다. 이 문헌에 따르면 당시 제주의

60) 겐쇼 에이스케 저, 홍성목 역(2002), 앞의 책

61) 겐쇼 에이스케 저, 홍성목 역(2002), 앞의 책

善生永助 著, 『生活状態調査(基二)濟州島』, 朝鮮印刷株式會社印刷, 1929.

일본어 원문에 이 표기는 없지만 그림에 버선(말)이 표기되어 있어 홍성목 역자가 추가함

62)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 『濟州島 V』 제주: 경신인쇄사, 2010.

이즈미 세이치 지음, 김종철 옮김, 『제주도: 1935-1965』 서울: 여름언덕, 2014.

홍성목 역(2010)에는 ‘갈옷감’이라고 해석하고, 이러한 천으로 만든 의류(柿澁衣類)의 예시 들고 있는 반면 김종철(2014) 번역에서는 ‘옷감’이란 표현 대신 ‘감물옷’이라고 번역하고 이를 통틀어 ‘갈옷’이라고 번역하고 있음. 따라서 ‘갈옷감’이라는 표현은 현대에 와서 천을 감물염색한 후 염색된 갈천으로 옷을 만들기 때문에 설명이 추가된 것으로 생각됨. 즉 일제강점기 때에는 천이 아닌 옷을 염색한 것으로 판단됨

63)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2010), 앞의 책.

남녀가 착용했던 감물들인 저고리(柵澁襦衣)는 육지에서 만드는 방법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즈미 세이치는 감물들인 남자 바지(柵澁男子袴衣, 柵澁男子中衣)는 그 제작법이 육지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즉 감물들인 남자 바지는 홀겹의 바지로 무릎 슬관절(膝關節) 부분에서 갑자기 좁아지고, 무릎 슬관절과 복사뼈 부위를 끈으로 묶는 형태이다. 감물들인 여자 바지(柵澁女子袴衣) 또한 육지의 것과 다르다고 하였다. 즉 허리부터 무릎 슬관절까지는 일본의 몸빼처럼 주름이 잡히지만 무릎부터 밑으로는 매우 좁아지고 감물들인 남자 바지와 마찬가지로 두 군데를 끈으로 묶는 형태이다.

이즈미 세이치가 1937년에 관찰한 감물들인 옷을 고부자가 제시한 제주 갈옷의 종류와 비교해 보면,⁶⁴⁾ 柵澁襦衣(시삽유의)는 남자와 여자가 상의에 착용하는 ‘갈적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柵澁男子袴衣·中衣(시삽남자고의·중의)는 남자가 하의에 착용하는 감물들인 바지로 고부자가 제시한 ‘갈중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즈미 세이치는 이것의 제작법이 육지 것과 다르다고 하였으나 고부자는 갈중이의 형태가 남자용 한복 바지와 동일하다고 한 바 있어서 추후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柵澁女子袴衣(시삽여자고의)는 ‘갈굴중이’로 불리던 옷으로 보인다. 갈굴중이는 넓은 허리단이 달리고 허리 밑으로 주름이 많이 지면서 바지통 또한 매우 넓은 단속곳인 굴중이에 감물을 들인 것이다.⁶⁵⁾ 그러나 고부자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는 갈몸빼가 입혀졌다고 한 바 있어서⁶⁶⁾ 이 당시에 입혀졌던 감물들인 여자 바지(柵澁女子袴衣)가 ‘갈몸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바지를 끈으로 묶었다는 이즈미 세이치의 설명에 따를 때 갈굴중이로 파악된다. 몸빼는 엉덩이 품과 바지통이 넓지만 허리와 바지 부리에 고무줄을 넣은 옷으로 허리와 발목 부위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형태이다.⁶⁷⁾ 특히,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도를 방문했던 당시는 몸빼가 한국에서 일반화되기 이전이란 점에서도 柵澁女子袴衣(시삽여자고의)는 갈굴중이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것은 몸빼는 1937년 중일전쟁에 이은 1941년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보급되고 착용을 강요받았지만 조선시대의 여자 바지 형태는 가랑이가 터져 있어서 바지를 겹옷으로 입는데 거부감이 컸기 때문에 1950년 6.25전쟁을 거치기 전까지는 보급률이 저조하였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⁶⁸⁾

64) 고부자(1972),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관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5) 고부자(1986),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3, 135-162.

66) 고부자(1972), 앞의 논문

67) 조희진(2002), ‘몸빼’를 통해 본 의생활의 전통과 외래문화, 실천민속학연구, 4, 147-165.

68) 조우현, 김미진(2015),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를 통해 본 한국패션, 복식, 65(7), 287-7827.

〈표 1〉 일제강점기의 제주 갈옷과 굴중이

	
<p>밭일하는 여인들 (1910년대)⁶⁹⁾ 갈적삼, 갈굴중이</p>	<p>문신생(여, 1911년생) 제주시⁷⁰⁾ 굴중이</p>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이즈미 세이치가 제시한 옷 이외에 다른 옷에도 감물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1924년 동아일보에 실린 제주기행문에서 “농군이 감물들인 잠빵능걸이에 커다란 정당별 립을쓰고 삼을메고가는양이” 라는 문장을 통해 감물을 들이는 옷 중에는 ‘잠빵능걸이’라는 옷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38년 조선일보에 실린 제주기행문에나와 있는 “葛袍(갈포)나 麻布(마포) 土産(토산)으로 적삼과 치마를 지어 입되 펄분 감물(柿汁)을 물들여”라는 문장을 볼 때,⁷¹⁾ 일제강점기에는 치마에도 감물을 들여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즈미 세이치가 작성한 『제주도(濟州島)』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치마에 감물을 들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흔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일제 강점기의 감물들이기

일제강점기의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들이기 문화는 감물을 들이는 원료, 감물을 들이는 대상, 감물들인 옷의 소재와 색상, 감물들인 옷의 기능성과 용도, 감물들인 옷의 의복규범, 감물들인 옷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1924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제주기행문들에서 “떨분 감물(柿汁)을 물들여”⁷²⁾ “柿澱染料(시삽염료)로 물드린”⁷³⁾라는 표현을 볼 때,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도 감물을 들이는데 사용된 감물 원료는 덜 익은 풋감임이었다. 이것은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도(濟州島)』 문헌에서 1937년에 제주에서 관찰한 옷이 뽕은 감으로 염색된 옷이었다는 점에서 시삽의류(柿澱衣類)로 표기한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감물들이는 풋감은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⁷⁴⁾ 제주에서 자생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주기행문에 나오는 “필자의 제의복(製衣服)에는 감물작육(作慾)을 무한(無限)이을 들여 입으며”라는 문장을 통해⁷⁵⁾ 일제강점기에도 감물을 들이는 대상은 옷이었음이 확인되었다.

69) 고부자(1994),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9

70) 고부자(1994), 앞의 논문.

71) 정지용, 조선일보, 1938년 8월 28일

72) 정지용, 조선일보, 1938년 8월 28일

73) 동아일보 1946년 12월 20일

74) 김상현 저, 홍기표 역주, 『남사록』, 제주문화원, 2011.

특히, 조선시대에는 무명보다 주로 베옷에 감물을 들였다면, 일제강점기에 감물을 들이는 옷의 소재는 葛袍(갈포), 삼(麻布), 거친 베 외에 무명, 고운 베, 모시까지 더욱 확장되었다. 이것은 조선 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제주기행문에 등장한 “여름옷 모시나 고운베에 감물을 김도열도안케연연히들여넘은 것은”,⁷⁶⁾ “무명이나 베에 감물을 벌거케 물드린 이섬특유의 로동제복을 입었다가”,⁷⁷⁾ “葛袍(갈포)나 麻布(마포) 土産(토산)으로 적삼과 치마를 지어 입되 緋분 감물(絛汁)을 물들여”⁷⁸⁾ “綿布(면포), 柿澁染料(시삽염료)로 물드린 活動的(활동적)인 作業服(작업복)이었으나”⁷⁹⁾ 등의 표현을 통해 파악된다. 감물들인 옷의 색상은 “緋분 감물(絛汁)을 물들여 그비치赤土色(적토색)과 다를 데가 없습니다”⁸⁰⁾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붉은 갈색이다. 이것은 앞에 제시한 문장에 나타난 “감물을 벌거케 물드린”이란 문구로도 뒷받침된다. 이것은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도(濟州島)』 문헌에서도 제주의 감물들인 옷은 적갈색이었다고 한 점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제주 기행문에 등장하는 “이 물색은 오색이나 칠색에 들지안는 감물이다. 시골에서만 볼 희한한 빛같이다”라는 문장을 볼 때,⁸¹⁾ 감물들인 옷은 오방색에도 속하지 않고 흔히 일컬어지는 전통 색상도 아니어서 외지인들에게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하고 특이한 색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제주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물들인 옷의 기능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다. 즉 “석양때쯤하야 농군이 감물들인 잠뽕능걸이에 커다란 정당벌립을 쓰고”⁸²⁾ “흙과 비에 젖지 안흐며 바다와 산에서 능히견딜 수 있는것이니”⁸³⁾라는 문구들에서 보듯이, 일제강점기에도 감물들인 옷은 흙이나 먼지를 잘 타지 않는 방오성을 비롯하여 물을 튕겨내거나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발수성 혹은 방수성이 높은 옷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비에 잘 젖지 않는 장점이 인식됨에 따라 일제강점기에는 감물들인 옷의 용도가 밭이나 들에서 일하는 농업은 물론 산이나 바다에서 일하는 목축업과 어업의 작업에까지 확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목축업과 어업 분야에서도 노동복으로도 활용된 것은 한정된 몇 개의 사료에 의존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로 농부복으로 활용되었던 조선시대와는 다른 점이다. 그리고 제주기행문에 “여름옷 모시나 고운베에 감물을 김도열도안케연연히들여넘은 것은”이라는 문장이 등장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⁸⁴⁾ 일제강점기에는 집안 생활에서도 감물들인 옷을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제강점기에는 감물들인 옷의 착용과 관련한 의복규범이 있었다는 점이다. 1935년 조선일보에 실린 제주 기행문에는 “일할때에는 무명이나 베에 감물을 벌거케 물드린 이섬특유의 로동제복을 입었다가도 외출할경우에는 말속한 한산세모시를 갈어입고는 머리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선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⁸⁵⁾ 또한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濟州島)』 문

75) 황야, 동아일보, 1935년 10월 4일

76)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7일

77)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78) 정지용, 조선일보, 1938년 8월 28일

79) 동아일보, 1946년 12월 20일.

80) 정지용, 조선일보, 1938년 8월 28일

81)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7일

82)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83) 정지용, 조선일보, 1938년 8월 28일

84)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7일

헌에 따르면, 1937년 당시 제주에서는 외출복에는 감물을 들이지 않았으며, 감물들인 옷 위에 두루마기를 입는 일도 없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제강점기에는 감물들인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이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즈미 세이치는 제주 여성들은 감물들인 바지(梯澁女子袴衣)를 농사나 작업 상황에서는 입을 수는 있지만, 공도(公道)에서는 감물들인 바지 위에 흰색이나 검정색 치마를 꼭 입어야 하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기록하였다.⁸⁶⁾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濟州島)』 문헌에는 해촌 여자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실제 사례 또한 제시되어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제주를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제주의 감물들인 옷은 양면적 측면에서 인식되었다. 즉 “섬의여자들은 도모지 번적번적하는 인조건의 호화를 즐길줄 모른다. 그대신 무명이나 베나 모시의질박을 사랑할줄을 안다”라는 문장에서 보듯이⁸⁷⁾ 외지인들은 감물들인 옷을 주로 착용하는 제주 사람들의 의생활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現代文化(현대문화)를 呼吸(호흡)못한 古色蒼然(고색창연)한 存在(존재)”라는 표현에서 보듯이⁸⁸⁾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신문에 실린 외지인들의 기행문 모두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의 감물들이기 문화는 일제강점기에도 이색적이고 독특한 제주만의 고유한 향토 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주기행문에 제시된 “물색 조흔 해주라더니 해주의 물색은 다업서저버리고 제주에는 아즉도 제주색이 남아있다” “이것을 못보신이에게는 안좌이득으로 제주가지안코 구경할길이잇스니” 등의 문장을 고려할 때,⁸⁹⁾ 해주에도 감물들이기나 향토적인 염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거의 사라진 데 반해 제주의 감물들이기 문화는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물색 조흔 해주라더니 해주의 물색은 다업서저버리고 제주에는 아즉도 제주색이 남아있다 이 물색은 오색이나 칠색에 들지안는 감물이다 여름옷 모시나 고운베에 감물을 김도열도안케연연히들여넘은 것은 미상불(未蔭不)이 시골에서만 볼 희한한빛같이다. 이것을 못보신이에게는 안좌이득으로 제주가지안코구경할길이잇스니 잠간종로에진일것가트면 무슨옥이무슨춘이의 열분치마속으로 아년듯그런듯빛치는노란 속것빛이다.”

-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7일

석양때쯤하야 농군이 감물들인잠빵능걸이에 커다란 “정당벌립”을쓰고 샅을메고가는양이 미상불고인을 보는 듯 순박고아하기 짝이없다.

-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섬의여자들은 도모지 번적번적하는 인조건의 호화를 즐길줄 모른다. 그대신 무명이나 베나 모시의질박을 사랑할줄을 안다. 일할때에는 무명이나 베에 감물을 벌거케 물드린 이섬특유의 로동제복을 입었다

85)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86)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2010), 앞의 책

홍성목(2010)은 갈굴중이를 설명하면서 굴중이라고 표기되고 있음. 갈굴중이는 굴중이라는 옷을 감물들인 것으로 치마 속에 입는 속옷인 굴중이나 외의화 된 것

87)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88) 동아일보 1946년 12월 20일

89)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7일

가도 외출할 경우에는 말숙한 한산세모시를 갈아입고는 머리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선다.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교통이 불편 속에 별다른점한만치 언어품 이만타. 쇠털병생활은 검소하기짝이었다. 남녀를 물론하고체 격이 크고 완강하여 생기를 띄운 미학적미남녀가 만하치와 초경모에서 '필자의 제의복(製衣服)에는 감물 작욕(作慾)을 무한(無限)이을 들여 입으며 도끄은곳이다.

- 황야, 동아일보, 1935년 10월 4일

漢拏山(한라산)이 視力範圍(시력범위)안에 들어와 서기는 실상 楸子島(추자도)에서도 흰색 이전이였섯겟는데-중략-葛袍(갈포)나 麻布(마포) 土産(토산)으로 적삼과 치마를 지어 입되 槲木(솔)을 물들여 그비치赤土色(적토색)과 다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흙과 비에 젖지 안으며 바다와 산에서 능히견딜 수 있는것이니 예로부터 도적과 습유가업고 악날과 허풍이 없는 묘묘한 양상 약도에 핏 파가리 아름다운 의상이 아니고 무엇이오리까!!

- 정지용, 조선일보, 1938년 8월 28일

漢拏靈山(한라영산)을 中心(중심)하여 島內(도내)의 海岸沿線(해안연선) 四百餘里(사백여리)를 一週(일주)하는 동안 一중략-센바람을 헤치고 怒濤險波(노도험파)를 潛泳(잠영)하는 浦邊(포변)의 海女作業(해녀작업)도 눈에 새로웠다. 特(특)히 눈에 띄우는 것은 路上(노상)을 지나가는 人影(인영)이 모두 女性(여성)뿐인 것이다. 나무를 지고가는 者(자)도 女子(여자), 우마차를 고는者(자)도 女子(여자), 물을 지러가는 者(자)도 女子(여자)이며, 짐지안코 지내는 女子(여자)가 없고 服色(복색)은 手織(수직), 綿布(면포), 柿澁染料(시삽염료)로 물드린 活動的(활동적)인 作業服(작업복)이었으나 모도가 現代文化(현대문화)를 呼吸(호흡)못한 古色蒼然(고색창연)한 存在(존재)였다.

- 동아일보 1946년 12월 20일

요약하면,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서는 조선시대의 감물들이기가 일제강점기 후반까지도 계속 전승되었으며, 남녀 모두가 일상적으로 감물들인 옷을 착용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천이 아닌 옷에 감물을 들였다. 감물들이기에 사용된 원료는 제주에서 나는 털익은 뽕은 감이고, 감물을 들이는 옷의 소재는 찻, 베, 마 외에 모시와 무명도 포함되어 조선시대보다 감물들이는 옷의 소재가 더 확장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외출복에는 감물을 들이지 않았으며, 감물들인 옷을 입고 공공장소에 가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감물을 들인 옷의 색상은 붉은 갈색이었으며, 장점은 흙에 쉬이 더러워지거나 비에 쉬이 젖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일제강점기에 감물들인 옷은 농부복이나 산과 들이나 바다에서 착용하는 노동복 용도로 활용되었다. 감물들인 옷의 종류로는 홑겹의 남자 상의와 하의(柿澁襦衣, 柿澁男子袴衣·中衣), 여자 상의와 하의(柿澁襦衣, 柿澁女子袴衣), 감물들인 치마와 잠뽕능걸이가 있었다. 상의에 착용하는 감물들인 옷은 저고리 형태와 유사하였으며, 하의에 착용하는 감물들인 옷은 품이 넉넉한 바지 형태로 무릎 아래 부위에서 끈으로 묶는 것이 특징이었다. 제주의 감물들이기는 외지인들에게 이색적인 제주만의 독특한 향토문화로 인식되었다.

4. 옷에 감물들이기와 ‘갈옷’ 용어의 사용

1)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제주의 갈옷과 감물들이기에 고찰한 바에 따르면, 제주의 감물들이기는 옷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주의 화산섬이라는 자연환경과 생업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화산섬 특성으로 제주의 흙은 점착력이 약해 먼지처럼 날리기 쉽다. 이것은 1601년 8월부터 1602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제주에 살았던 김상헌(金尙憲)이 『南槎錄(남사록)』에서 “흙의 성질은 푸석하고 건조하여 밭을 개간하려면 반드시 소나 말을 몰아서 밟아줘야 한다”는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⁹⁰⁾ 그런데, 감물은 점착력이 강해 감물을 들이면 섬유 사이의 공간을 메꾸는 한편 감물이 칠해지는 표면을 코팅하는 역할을 한다.⁹¹⁾ 따라서 감물들이는 옷은 밭에서 풀풀 날리는 흙이나 먼지가 옷속으로 들어오는 것, 옷에 달라붙는 것, 물결에 젖는 것을 막아주는 한편 옷의 겉면에 묻은 흙이나 새벽 이슬도 손으로 털면 쉽게 털리는 특성을 갖는다.⁹²⁾ 또한, 풋감에는 방부성과 항균성 기능을 하는⁹³⁾ 탄닌 성분이 많아 세탁을 자주 안 해도 위생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제주 사람들은 조선시대부터 이에 대한 경험적 지식으로 옷에 감물을 들여 농부복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생업환경과 한라산을 배경으로 하는 중산간에서의 생업환경으로 감물들이는 옷은 들과 밭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와 산에서의 노동복으로도 활용됨에 따라 제주에서는 감물들이는 풍속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1965년 7월 당시로서는 약 350년 전이고 현재로서는 약 408년 전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감물들이는 면직물이 광주 무등산에서 출토된 바 있다. 출토 당시에 이 유물은 감이 갖는 방부성을 이용해 망자를 덮는 용도의 면포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⁹⁴⁾ 이 면직물 유물이 옷의 일부이거나 옷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된 옷감은 아니지만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직물이나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가 있었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허복구는 전라남도 진도지역에서 행해졌던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 지역에서도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가 있었음을 『근대 전남 진도의 감물 염색 기술과 문화』 저서에 제시하였다.⁹⁵⁾ 이것은 진도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1940년대 전후에 있었던 감의 이용과 감물 염색한 옷의 착용에 대해 면담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허복구는 감물 염색이 진도 고유의 향토문화인지 아니면 해남 지역의 문화였던 감물염색이 다른 주변 지역에 비해 진도에 오래 남아있었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40년대 전후까지 진도에는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가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 발표된 허복구의 『근대 전남 진도의 감물염색 기술과 문화』에 따르면, 제주의 감물들이기는 옷에 감물들

90) 김상헌 저(2011), 앞의 책

91) 홍희숙 외(2021). 국내산과 태국산 닥섬유 및 목재펠트가 혼합된 줌치한지의 감물염색에 따른 강도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45(6), 1035-1051.

92) 홍희숙, 김기역(2018). 감물염색가공에 따른 줌치한지 종이소재의 강도 변화-감물염색가공 여부와 감물농도 차이에 따른 변화, 한국의류학회지, 42(2), 224-236.

93) 홍희숙, 신탐라 gift & 체험 프로젝트 사업: 건강기능성 패션상품 연구개발.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사업 (2005.7.1.-2006.6.30.).

한영숙(2005), 감즙과 감즙 염색 면직물의 항균성, 대한가정학회지, 43(3), 119-129.

94) 이정숙(1982), 조선중기 출토 면직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5) 허복구(2017), 『근대 전남 진도의 감물염색 기술과 문화』, 광주광역시: 세오와 이재.

이는 방법, 절차, 횃수 및 발색 방법 등 몇가지 측면에서 진도의 감물염색과 차별화된다. 일반적으로 진도의 감물염색은 풋감을 따서 절구에서 감을 파쇄한 후 옷을 절구에 넣어 1차로 감물을 들인 후 건조시키고, 건조 후에 다시 풋감을 파쇄한 절구에 옷을 넣어 2차로 감물을 들인 후 건조시켜서 발색 단계 없이 감물염색한 옷을 착용하였다. 아니면 1차로 감물염색한 옷을 건조시킨 후 시궁창 흙에 옷을 묻은 후 다시 꺼내서 수세후 2차 염색을 하여 착용하였다. 반면 제주의 감물들이기에서는 처음에 감물을 들인 후에는 2차로 감물들이는 재염과정이 없으며 1차 감물들이기 이후에는 물과 햇볕 건조를 반복하는 ‘바래기’ 과정을 거치는 대신 2차로 감물염색을 하거나 진흙 염색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주와 진도에서 감물염색에 사용하는 풋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의 감물들이기에 사용하는 풋감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풋감에 비해 탄닌 성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는 이미 학계에서 알려진 바이다. 탄닌성분이 많은 풋감을 이용하여 감물들이는 제주에서는 2차로 감물염색을 추가하거나 진흙에 묻어 매염제 역할을 하는 철의 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물과 햇빛에서의 건조 만으로도 충분히 색상이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진도의 이러한 감물염색에 대한 내용은 1940년대 전후에 제한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1950년대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 후기 이전부터 제주에서 입혀졌던 감물들이기 옷과 제주에서 행해졌던 감물들이기 문화는 현대사회와 현대기술의 변화에 발맞추어 현재까지 300년 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또한 옷에 감물들이는 제주지역의 문화는 조선시대에 전국의 산이나 농촌의 생활을 망라하여 저술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⁹⁶⁾와 『농정회요(農政會要)』⁹⁷⁾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⁹⁸⁾에 설명되어있는 감물염색과는 약간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문헌들에서 설명하는 감물염색 방법(柿染法, 柿漆造法)에 따르면 감을 찢어서 부순 감즙에 담그는 방법은 유사하지만 감물염색에 사용되는 재료는 뚫은 감에 제한되지 않는 점이나 감즙을 하루 이틀 묵혔다가 이용하는 점은 제주의 감물들이기 방법과 다르다.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는 발효감이나 묵힌 감이 아니라 감을 따서 그날 바로 염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제주도 주부가 동아일보에 게재한 ‘제주 갈옷’이란 글에서 표현한 “아직 채익지 않은 싱싱한 감을 방아에 찢어 생긴 물을 옷감에 들여서 고동색을 낸 것이다”라는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⁹⁹⁾ 진성기 또한 제주에서는 “생감(풋감)”을 빵아 나온 뚫은 물로 염색한다고 설명하였다.¹⁰⁰⁾ 이와 같이 풋감을 따자마자 바로 감물을 만들어 염색하는 제주의 감물들이기는 일본의 전통감물염색과도 다른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¹⁰¹⁾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작성된 『임원경제지』에도 옷에 감물을 들였다는 내용은 없다. 즉 “染紙爲衣(염지위의) 爲行李裹(위행이과) 染布爲酒搾袋(염포위주착대)”라는 문장이 나오지만 이것은 의류용 종이¹⁰²⁾에 감물을 들이거나, 여행용 행낭 보자기에 감물을 들이거나, 베와 같은 천

96) 柳重臨 著, 고농서국역총서 4 『增補山林經濟I』 卷之三 種樹 柿, 농촌진흥청, 2003.

97) 崔漢綺 著, 고농서국역총서 11 『農政會要II』 卷10 農餘 柿, 농촌진흥청, 2006.

98) 徐有渠 纂, 『林園十六志』第2卷「瞻用志」卷3 設色之具 柿漆, 서울大學校古典刊行會, 1966.

99) 문혜숙, 동아일보 1967년, 1월, 4일

100) 진성기(1960), 앞의 책

101) 박순자. 2011. 한국과 일본의 감즙제조와 염색법 및 염색물 변용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1). 77-84

102) 의류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종이를 만든 옷본에 감물을 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옷에 감물을 들인 것은 아

에 감물을 들여 술 짜는 포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¹⁰³⁾ 그리고 1920년대부터 일제강점기의 신문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감물염색이나 갈옷이 다른 지역과 연관되어 나타난 사례가 없었던 점과 제주기행문에서 감물염색이나 갈옷이 매우 기이하고 제주만의 특색이라고 서술된 점을 고려할 때¹⁰⁴⁾ 1940년대에 진도지역에서 감물염색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주만큼 성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감물을 옷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활용한 사례는 일제강점기의 신문기사들에서도 관찰된다. 이것은 김제에 거주하는 독자가 그물을 오랫동안 보존하여 사용하기 위해 질문한 시삽제조법(柿澁製造法)에 대한 답변,¹⁰⁵⁾ 배나무의 병충해 예방을 위해 시삽을 도포하는 것에 대한 글,¹⁰⁶⁾ 원료청시(原料淸柿)를 절구에 찌어 압착하여 감즙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료시칠(原料柿漆)을 다양한 종류의 종이, 기구, 건축재료, 선박 등의 내구력 강화, 방부, 방수, 결측과 같은 기능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글¹⁰⁷⁾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강화도¹⁰⁸⁾, 의성군¹⁰⁹⁾ 등에서 부업으로 시삽(柿澁)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였던 사례들을 신문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에서 행해지는 감물들이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의복 용도에 특화되어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망이나 낚시줄 등의 어구나 양조용 주머니를 비롯하여 주로 산업 자재의 염색에 이용된 일본의 감물염색 문화와도 차별화되는 것이다.¹¹⁰⁾ 물론 제주에서도 옷 이외에 갈치 잡는 낚시줄,¹¹¹⁾ 장판지, 그물, 고리짜, 구덕, 창호지, 펄방, 명석 등 다른 것들에도 감물을 이용했다는 보고들이 있지만¹¹²⁾ 옷에 감물들이는 것 만큼 보편화된 문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것은 농업과 어업 인구의 감소, 도시화, 기계화 등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도 점차 사라진 반면 감물들인 ‘갈옷’이나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추어 함께 현대적 갈옷으로 제주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전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柿染法(시염법) 每柿一升(매시자일승) 搗碎用水半升(도쇄용수반승) 釀四五時搾取染(양사오시착취염) 令乾
染水再取(령건염수재취) 亦得可供雨傘用(역득가공우산용)¹¹³⁾
柳重臨, 『增補山林經濟』卷之三 種樹

崔漢綺, 『農政會要』卷10 農餘

감물을 들이는 방법은 감씨[柿子]1되를 찧어 부수고 물 반 되를 부어 4~5시간 정도 뒤섞어 두었다가

님. 그러나 이 책의 번역본에는 “종이에 물들여 옷을 만들거나”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03) 徐有渠 纂(1966), 앞의 책; 崔漢綺 著(2006), 앞의 책

104)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105) 조선일보 1935년 2월 27일

106) 조선일보, 1920년 7월 16일

107) 동아일보 1936년 9월 16일

108) 동아일보, 1928년 10월 16일

109) 동아일보, 1934년 12월 12일

110) 박순재(2011), 한국과 일본의 감즙제조와 염색법 및 염색물 변용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지역사 회생활과학회지, 22(1), 77-84

111) 고광민(1985), 제주도 민구(II), 탐라문화, 제4호, p. 265

112) 허복구, 박지혜(2013), 앞의 책

113) 괄호 안의 한글 음은 필자가 추가함

짜서 물감을 취한다. 찌꺼기를 말렸다가 물을 재차 취해도 된다. 우산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다.

유중립 저, 고농서국역총서 4(2003), 『증보산림경제』

최한기 저, 고농서국역총서 11(2006), 『농정회요II』

裨柿(비시) 一名漆柿(일명칠시) 一名綠柿(일명녹시) 一名靑柿(일명청비) 一名烏柿(일명오비) 一名花柿(일명 화비) 一名赤棠柿(일명적당시) 乃柿之小而卑(내시지소이비) 者生江淮宜歙荊襄閩廣諸州(자생강회선흡형양민 광제주) 雖熟亦深綠色大如杏(수숙역심록색대여행) 味甘可生啖(미감가생담) 搗碎浸汁謂之柿漆(도쇄침즙위지 시칠) 可染罽毳諸物(가염증선제물) 域我東南海等地有柿(역아동남해등지유시) 色靑雖至霜降色不變(색청수지 상강색불변) 噉之味甘(담지미감) 名甘子柿(명감자시)¹¹⁴⁾

- 崔漢綺, 『農政會要』 卷10 農餘

비시(裨柿)는 일명 칠시, 일명 녹시, 일명 청비, 일명 화비, 일명 적당시이니, 감나무 중에 작고 낮은 것을 말한다. 강주, 회주, 선주, 흡주, 형주, 양주, 민주, 광주 등지에서 나는데 비록 익더라도 짙은 녹색이며, 크기는 살구만 하다. 맛은 달아서 날로 먹을 만하며, 찢어 부수어서 즙에 담그는 것을 시칠(柿漆)이라고 일컫는데 어망이나 부채(扇) 등의 물건을 염색할 수 있다. -중략- 우리나라 동남쪽 바다 등지에 감이 있어, 푸른색이 나는데 비록 상강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고 먹으면 맛이 달아서 단감(甘子柿)이라고 부른다.

- 최한기 저, 고농서국역총서 11(2006), 『농정회요II』

[柿漆](시칠)

柿漆造法(시칠제법) 裨柿一斗去蒂(비시일두거체) 和水二升五合(화수이승오합) 碓搗盛桶(대도성통) 經宿搾之(경숙작지) 渣亦和水(사역화수) 經二日(경이일) 再搾之(재작지) 其用甚多(기용심다) 染紙爲衣(염지위 의) 爲行李裏(위행이과) 染布爲酒榨袋(염포위주착대) 或和墨塗箕(혹화혹도견) 皆爲水不易朽(능의수불양후) 或漆塗之下(혹칠도지하) 先用柿漆(선용시칠) 凡柿漆(범시칠) 夏月焦枯難貯(하월초고난저) 茄子切片投入(가자 절편투입) (案)인) 今嶺湖南團扇(금영호남단선) 摺疊扇之黑漆者(접첩선지흑칠자) 皆柿漆也(능시칠야) 東北 峽民斂木作槃盒之類(동북협민선목작반합지류) 先用柿漆作底(선용시칠작저) 然後以漆刷其上(연후이칠별기 상) 則與全漆無異(즉여전칠무이) 又房室天板上既塗紙(우방실천판상기도지) 後用松煙爲底(후용송연위저) 復上柿漆數三度(부상시칠수삼도) 則光潤可鑑人(즉광윤가감인) ○ 和漢三才圖會(화한삼재도회)¹¹⁵⁾

- 徐有渠, 『林園十六志』 第2卷 「贍用志」 卷3 設色之具

시칠(감물칠)

시칠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땡감 1두의 꼭지를 떼고 여기에 물 2.5승을 섞어 방아로 찼고 통에 담았다가 하룻밤이 지나서 짠다. 남은 찌꺼기도 물을 섞어 이틀을 묵혔다가 다시 짠다. 그 용도가 매우 많아 종이에 물들여 옷을 만들거나,¹¹⁶⁾ 여행용 보자기를 만들거나, 배에 물들여 술 찌는 포대를 만들거나, 먹에 개어 대 흡통을 칠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모두 물에 쉽게 썩지 않는다. 또는 옷칠 하기에 앞서 먼저 시칠을 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시칠은 여름에는 말라서 저장에 어려우므로 가지 조각을 넣어 준다. 【(인) 지금 영호남의 동글부채나 접부채의 검은 칠은 모두 시칠이다. 동북의 산골백성은 나무를 갈이틀로 동글게 깎아 대야나 합 따위를 만들 때 먼저 시칠로 바탕을 칠한 뒤 그 위에

114) 팔호 안의 한글 음은 필자가 추가함

115) 徐有渠 纂(1966), 앞의 책

116) 의류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종이를 만든 옷본에 감물을 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문 번역 검토 필요함

옷을 문지르는데, 이렇게 하면 전부 옷으로 칠한 것과 다름이 없다. 또 방의 천장널 위에 종이를 바른 뒤에 송연으로 바탕을 칠하고 다시 그 위에 2~3번 시칠을 하면 광이 나서 사람을 비출 수 있다.】(《화한삼재도회》¹¹⁷⁾)

- 풍석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2016), 『임원경제지 섬용지 2』

2) '갈옷' 용어의 등장과 사용

앞에서 제시했듯이 제주에서 행해지는 감물들이기의 가장 큰 특징은 옷에 감물들이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한자를 써서 '옷에 감물들이다(栴染衣)' '감물들이 옷(栴澁衣類)' '감물염료(栴澁染料)로 물드린'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 사람들은 감물들이 옷을 '갈옷'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성기(1979)는『제주 민속의 멋 1』에서 '갈옷'이란 '감옷'을 뜻하며, 한자 말이 아닌 순우리말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2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신문에서 '갈옷'이란 용어를 검색한 결과, '갈옷'이란 한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31년 조선일보에 실린 제주도 기행문에서이다.¹¹⁸⁾ 이 기행문에는 제주를 떠나면서 보게된 노인이 착용한 '검은 갈옷'에 대한 묘사가 있다. 여기서 갈옷이 검은 색상으로 묘사된 것은 멀리서 본 것이라 부정확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색되는 갈옷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감물들이 옷은 처음에는 적갈색이지만 입으면서 땀이나 세탁 비누의 알칼리성 성분으로 인해 검은 색상으로 변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65년 동아일보에서도 '갈옷'이란 용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제주에 거주하는 주부가 '제주 갈옷'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글로서 제주에서 행해지는 감물염색과 갈옷의 장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외로운 섬에 사는 사람을 자세히 탐색하였더니 모옥에서 나부깨이는 검은 갈옷 입은 노인 한분과 젊은 처녀가 해안 쪽으로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보인다. 어엽분 섬의 처녀여-얼마나 대륙이 그리우냐? 이라는 동안에 배는 점점 제주도를 멀리 뒤에다 남기고 수평선에 연하여 서남방의 대양으로 나가 버렸다.

- 홍양명, 조선일보 1931년 4월 10일

나는 제주도에서 널리 애용되는 노동복(갈옷)을 권장하고 싶다. 이것은 아직 채 익지 않은 싱싱한 감을 방이에 찢어서 생긴 물을 옷감에 들여서 고동색을 낸 것이다.

- 문혜숙, 동아일보 1965년 9월 9일

한글로 '갈옷' 혹은 '감옷'이라고 표기한 사례는 1965년과 1968년에 발행된 제주에 관한 문헌들에서도 관찰된다. 1965년에 발행된 『제주도 대한지지 I』에 “참으로 이 갈옷이야 말로 外國産(외국산) 나이롱에 못지않는 勞農服(노동복)으로서 질기고 簡便(간편)하고 經濟的(경제적)이다”라는 문장이 있다.¹¹⁹⁾ 그리고 '갈옷'은 아니지만 '감옷'이란 용어가 1968년에 발행된 『원대정군지』에서 관찰된다.¹²⁰⁾ 이 문헌은 대정현의 설치부터 대정 지역의 역사, 자연환경, 각종 시설 등을

117) 풍석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섬용지 2』, 풍석문화재단, 2016.

118) 조선일보 931년 4월 10일

119) 우락기(1965), 『濟州道 大韓地誌 1』, 한국지리연구소. 한자의 괄호 안 한글 음은 필자가 추가함

120) 고병오, 박용후(1968), 『元大靜郡誌』, 제주:박문출판사. 한자의 괄호 안 한글 음은 필자가 추가

한문과 한글 혼용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 문헌에는 영조 39년(1763)에 대정면 감산리에 유배왔던 심래복(沈來復)과 얽혀 대정 마을 사람이 한양(皇城)으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을 때 그 대정 사람이 ‘감옷’으로 인해 죄를 면한 내용을 ‘시의면화(柿衣免禍)’라는 소재목으로 소개하였다. 즉 심문하는 형관(刑官)이 착용한 ‘감옷’이 특이하여 이에 대해 질문하자 대정 사람이 “이것은 濟州(제주)의 農夫(농부)의 옷인데 발일을 하는 날 王命(왕명)이 忽然(홀연)히 내렸으므로 이것을 벗을 겨를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형관이 이를 불쌍히 여겨 죄를 면하였다는 내용이다. 대정 사람의 답변에 따를 때 영조 39년(1763) 대정면 감산리에서는 농부들이 갈옷을 입고 일했음을 알 수 있으며, 『원대정군지』를 작성하던 1968년에는 이 감물들인 옷을 한자(柿衣)와 한글(감옷)로 혼용하여 표기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감옷’을 한글로 표기한 사례는 “이 감옷이야말로 위생상으로도 경제적 면으로도 “나이롱” 이상의 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서술한 진성기의 1969년 저서 『남국의 세시풍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¹²¹⁾ 이러한 사례들은 일부 연구자들¹²²⁾이 제주의 민속복식인 ‘갈옷’을 ‘감옷’으로는 부르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적어도 1960년대 중반에는 ‘갈옷’과 ‘감옷’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참으로 이 갈옷이야 말로 外國産 나이롱에 못지않는 勞農服으로서 질기고 簡便하고 經濟的이다
- 우락기(1965), 『濟州道 大韓地誌 1』

皇城(황성)에 이르러 裸體(나체)로 刑(형)을 실문할 때 감옷이 나타나므로 刑官(형관)은 처음으로 감옷을 본데 놀라서 特異(특이)하게 여겨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濟州(제주)의 農夫(농부)의 옷인데 발일을 하는 날 王命(왕명)이 忽然(홀연)히 내렸으므로 이것을 벗을 겨를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刑官(형관)은 그 事情(사정)을 들을 때 불쌍한 생각이 나서 임금께 여주어 赦免(사면)하였다.
- 고병오, 박용후(1968), 『元大靜郡誌』

이렇게 보아가면 사실 외국에서는 “나이롱”을 노동복으로 입는다고 하지만, 이 감옷이야말로 위생상으로도 경제적 면으로도 “나이롱” 이상의 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다.
- 진성기(1969), 『남국의 세시풍속』

1960년대 이후 1999년까지 ‘갈옷’이란 용어가 신문에서 사용된 사례를 연대별로 검토한 결과, 2건만 관찰되었던 1960년대와 달리 1970년대(5건), 1980년대(3건), 1990년대(28건)로 갈수록 ‘갈옷’이란 한글 용어의 사용은 증가하였으며 이 용어는 거의 모두 제주와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1920년과 1999년 사이에 신문에 발표된 갈옷에 관한 38건의 글들 중에서 37건이 제주와 관련되었다. 즉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감물들이기 시연에 관한 홍보 기사 1건을 제외하고는¹²³⁾ 모두 제주와 연관되어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문과 한글을 혼용하여 표기하던 일제강점기는 물론 본 연구의 신문자료 조사 범위인 1920년부터 1999년까지 약 77년 동안 ‘갈

121) 진성기(1969), 『남국의 세시풍속』, 제주: 제주민속문화연구소, p. 260
122) 이혜선, 박지혜, 고은숙(2009), 제주의 감물염색. 제주: 제주사람들, p. 21
장현주(2004), 한국 전통 모직물의 유형과 특성, 복시, 54(8), p. 89.
123) 동아일보, 1998년 7월 25일

옷'이란 단어가 한자로 표기되거나 한자와 함께 표기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제주 사람들이 사용하는 '갈옷'이란 용어는 진성기의 의견대로 순 우리말 표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정마을에 관한 내용에서 한글표기인 '감옷'과 한자 표기인 '柿衣(시의)'가 하나의 단락에 함께 혼용되어 표현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갈옷'이란 용어는 '가죽 옷' 보다는 '감옷'이나 감옷의 색상인 '갈색'과 연관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갈옷' 용어의 기원은 더 많은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다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헌과 자료들에 의할 때 '갈옷'이란 순우리말 용어는 적어도 1931년 이전부터 사용되어 현재까지 약 92년 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된다.

요약하면, '갈옷'이란 용어는 한문으로 표기되지 않는 순우리말이란 점이 명확해 보인다. 1931년 조선일보 신문에 '갈옷'이란 용어가 등장한 점을 보아 이 명칭은 현재까지 적어도 92년 이상 사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감물들이 옷을 '갈옷'이란 명칭으로 부른 역사 또한 거의 100년에 가깝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남국의 세시풍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12세기-13세기 어느날 어부가 낚시줄에 감물을 들였더니 고기가 잘 잡혔다는 전설¹²⁴과 제주도 고씨 문중의 역사를 기록한 『탐라성주유사』에서 갈옷과 감물염색이 원나라 말 운남성의 묘족들에 의해 전해졌을 것이라는 추측¹²⁵에 의하면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 역사는 약 12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설과 추측을 예외로 하고 본 연구에서 조사한 고문헌과 한시들에서 관찰한 객관적인 기록에만 근거한다면 제주의 갈옷과 감물들이기 역사는 윤봉조의 저서인 『포암집』에 실린 '도중잡영' 한시의 배경이 되었던 조선 후기(1728-1729년) 이전인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약 3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전승되어왔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들이기' 문화는 주로 옷의 염색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당시에 착용되었던 감물염색된 옷은 남성과 여성의 상의인 갈적삼과 남성의 하의인 갈중이와 여성의 하의인 갈굴중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에서 행해진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나 감물들이 옷의 착용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도 일상적으로 성행되어 왔으며, 다른 지역의 감물염색 문화와도 차별적임이 확인되었다.

III.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의 변천 양상

의복은 정치, 사회, 문화, 기술의 변화와 맞물려 형태, 소재, 차림새 등이 함께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 제주 갈옷의 변천 과정을 제주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적 수준의 변화, 나일론과 화학섬유의 보급, 국가의 정책적 측면과 연관시켜 고찰하였다. 특히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갈옷의 종류와 형태, 갈옷의 착용 여부와 차림새, 갈옷의 제작 주체와 감물들이는 대상, 감물들이는 소재와 방법을 중심으로 변천 양상을 분석하였다.

124) 진성기(1969), 앞의 책

125) 탐라성주유사편찬위원회(1979), 앞의 책

김태능(1982), 앞의 책

1. 해방 이후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제주 갈옷

1) 1940년대와 1950년대의 갈옷 착용 현황

해방 이후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제주에서 착용되었던 제주 갈옷에 대해 설명하는 문헌이나 논문은 찾기 어렵다. 신문기사 검색에서도 ‘갈옷’ ‘감옷’ ‘감물’ ‘감물들이기’ ‘시염’ ‘시삽’ ‘시찰’ ‘시자염’ ‘시줍’ ‘시수’ 라는 용어는 한글로도 한자로도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1950년대에 제주에서 집집마다 행해졌던 감물들이기 문화나 갈옷 착용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갈옷 착용이 단절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해방 이후 1940년대와 1950년대는 6.25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 기반을 잃고 절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 시기이다.¹²⁶⁾ 제주 또한 1947년 3월에 발생한 4.3사건이 7년 동안 계속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경제 정체기였다.¹²⁷⁾ 1950년대 제주의 지역경제는 전통적인 농업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¹²⁸⁾ 일제강점기에 이용되었던 갈옷이 계속 입혀졌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면접에 참여한 80세와 90세 가까운 노인 여성들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제주에서 감물들이기를 직접 했거나 자주 보았다고 응답하였다.¹²⁹⁾ 그리고 1940년대에 국내에 유입된 나일론은 1950년대까지도 가격이 비싸고 사치품으로 인식되어 국내에서도 대중화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서¹³⁰⁾ 제주의 갈옷을 대체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2) 1940년대의 갈옷 종류와 형태

1940년대 제주에서 착용되었던 갈옷은 사진 자료에서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100년』¹³¹⁾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¹³²⁾ 사진집들에서 연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단 2장의 사진들을 통해서만 1940년대 후반에 입혀졌던 제주 갈옷에 대해 엿볼 수 있었다. 하나는 4.3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여름에 토벌대와 함께 있는 중산간 청년이 착용한 갈옷이며, 또 다른 하나는 1949년에 말을 끌고 귀가하는 남성 노인이 착용한 갈옷이다. 중산간 청년과 남성 노인이 착용한 갈옷 상의는 한복 깃이나 고름은 없는 대신 등근 목 파임이 있고, 단추로 좌우 앞판을 여미게 된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이었다. 사진상으로는 단추와 포켓 숫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갈적삼의 길이가 허리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단추가 여러 개 달리고 포켓도 좌우 2개 달린 것으로 파악된다. 1940년대의 갈옷 하의는 두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하나는 중산간 청년이 착용한 갈옷으로 하의가 엉덩이 품은 매우 넉넉하고 바지통은 발목까지 혈령하게 내려오다가 발목에서 오므러진 형태이다. 노인이 하의에 착용한 갈옷은 한복 바지 형태이다. 즉 허리에서 바지를 끈으로 메고 허리 위로 나온 부분을 접어서 끈 아래로 내리는 착용 방식이었다. 그리고 바지

126) 구본호, 이규역(1991),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한국컴퓨터산업(인쇄) 주식회사, 1991(pp. 166-177).

127) 김태보(1995), 제주지역경제의 발전사적 고찰, 사회발전연구, 14, 451-466.

128) 김태보(1995), 앞의 논문

129) 허복구, 박지혜(2013), 앞의 책

130) 홍병숙, 정미경(1996), 나일론이 의생활 및 섬유산업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945년부터 1970 고분년을 중심으로-, 복식, 28, 31-46.

131) 제주도, 『제주 100년』, 현대문화인쇄사, 1996, p. 109

132)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 보는 제주 역사』, 제주: 도서출판각, 2009.

의 엉덩이 품은 넉넉하고 발목 부분은 오므리지 않고 일자로 내린 형태였다. 한편, 해방 이후 1940년대에 촬영한 여성의 갈옷 차림은 찾기 어려웠으며, 몇 개의 사진에서 갈옷으로 추측되는 모습이 있었지만 사진 상으로는 그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195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사진들에서는 여성들이 착용한 갈옷이 관찰되었다.

〈표 2〉 1940년대 제주 갈옷

	
<p>중산간의 주민과 토벌대(1948년)¹³³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 갈중이</p>	<p>어느날의 귀가(1949년)¹³⁴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 갈중이</p>

3) 1950년대의 갈옷 종류와 형태

1950년대에 주로 촬영된 것이라고 서문에 쓰여진 만농 홍정표 선생의 사진집 『제주 사람들의 삶』¹³⁵, 『제주 사람들의 삶Ⅱ』¹³⁶에는 농사일을 하는 농부나 어선을 배경으로 고기잡는 일을 하는 어부들이 등장한다. 사진에 등장하는 등짐진 여인, 조이삭을 따는 여인, 멧돌 돌리는 여인, 연지방아 돌리는 남녀, 마께 두드리는 노인, 자리거리는 어부들 대부분이 상의와 하의에 갈옷을 입고 있었다. 사진에서 관찰되는 옷들을 통해 1950년대 남녀 갈옷의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1950년대의 남성용 갈적삼은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깃은 있고 고름은 없는 한복 저고리 형태로 깃이 끝나는 지점에 단추 1개가 달려서 좌우를 여밀 수 있게 되어있으며 길이가 허리까지였다. 또 하나는 마고자 형태로 깃이나 고름이 없고 단추가 여러 개 달려서 좌우를 여미게 된 형태로 길이는 허리까지였다. 1950년대의 갈중이는 한복바지 형태로 엉덩이 품이 크고 바지통이 넉넉한 형태였으며 발목 부분이 오므려진 형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홍정표의 사진집에 나오는 여성들의 갈옷차림은 거의 모두가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이었다. 즉 저고리에 깃이 달려 있고, 깃이 끝나는 지점에서 매듭단추 하나로 좌우를 여미는 갈적삼이었다. 특히, 1950년대 여성용 갈적삼은 저고리 길이가 매우 짧아 갈적삼 안에 입을 속옷이 겹으로 드러나 보였으며, 갈적삼 품은 꼭 끼는 것이 특징이었다. 1950년대 여성들이 하의에 주로 착용한 갈

133) 제주특별자치도(2010), 앞의 사진 자료집

134) 제주도(1996), 앞의 사진 자료집

135) 제주대학교(2002), 『만농 홍정표선생 사진집 제주사람들의 삶』, 서울: (주)일원퍼앤씨.

136) 제주대학교박물관(1995), 『만농홍정표선생사진집 제주사람들의 삶Ⅱ』, 서울: (주)로얄프로세스.

옷은 허리 아래로 주름이 풍성히 잡히고, 엉덩이 품과 바지통은 넓고, 발목이 오므려진 몸빼 형태였다.¹³⁷⁾ 이것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에서 관찰한 갈옷, 즉 허리 밑으로 주름이 많이 잡히고 무릎 밑에서는 남자 한복처럼 끈으로 묶는 형태와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1950년대 사진들에서 관찰된 갈몸빼인 경우, 허리 부분과 발목 부분의 형태가 각각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즉 허리 부분을 굴중이처럼 너비가 넓은 천으로 덧댄 형태와 허리에 고무줄을 넣은 형태가 있었다. 허리에 천을 댄 경우는 끈으로 묶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발목 부분 또한 천으로 된 좁은 단을 붙이거나 고무줄을 넣어 바지를 오므린 형태가 관찰되었다. 발목에 천을 댄 경우는 끈으로 묶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좁은 단을 붙여 바느질 한 것이다. 이것은 6.25 전쟁 이후 1950년대에 일본식 몸빼가 대중화됨에 따라¹³⁸⁾ 허리 단이 천으로 되어 있는 굴중이와 고무줄을 넣는 몸빼가 융합되어지면서 나타난 변화로 판단된다. 한편, 1950년대의 갈옷 차림에서는 검정색의 적삼이나 몸빼를 갈옷과 함께 입은 사례도 자주 관찰된다. 검정색 의복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의 의복개량과 백의금지령을 위해 검정색 염료의 보급과 함께 권장되다가 해방 이후 민속의식 고취로 백의를 착용하다가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인한 물자결핍과 경제성과 실용성 등의 이유로 다시 애용되었다.¹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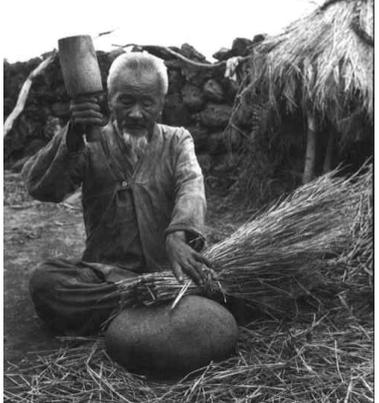
요약하면, 해방 이후 1940년대와 1950년대 남성이 착용한 갈적삼은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과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의로 입혀진 갈중이는 엉덩이 품은 크고, 밑은 길었으며, 발목 부위는 끈으로 묶은 것과 그냥 일자로 내린 2개 유형이다. 1940년대와 1950년대 여성이 상의에 착용한 갈적삼은 저고리 형태로 길이가 매우 짧고 품이 팍끼는 것이 특징이다. 하의로 입혀진 갈몸빼는 허리와 발목 부위에 천을 댄 것과 고무줄을 넣은 것이 있었다. 끈으로 묶지 않고 고무줄을 넣은 형태는 1937년 일제강점기에 이즈미 세이치가 관찰한 갈옷과 다른 점으로 해방 이후 1940년대와 1950년대로 오면서 변화된 갈옷의 특징으로 판단된다.

137) 제주도(1996), p. 146

138) 조우현, 김미진(2015).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를 통해 본 한국패션, 복식, 65(7), 287-7827.

139) 조우현, 김미진(2015). 앞의 논문

〈표 3〉 1950년대 제주 갈옷

	
<p>딩드렁과 덩드렁 막개¹⁴⁰⁾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 갈중이</p>	<p>연자매¹⁴¹⁾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 갈중이, 갈몸뻐</p>
	
<p>집 지어 나르기¹⁴²⁾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 갈몸뻐</p>	<p>마차끄는 아낙네(1951)¹⁴³⁾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 검정 몸뻐</p>

2. 196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1) 1960년대의 갈옷 착용 현황과 갈옷 형태

1960년대는 한라산 제1횡단도로인 5.16도로를 포장하고 일주도로, 항만, 제주공항, 전력과 통신, 상수도 등을 확장하며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시기이다.¹⁴⁴⁾ 이 시기에 제주를 두 번째로 방문했던 이즈미 세이치는 1937년에 생활필수품처럼 입혀지던 갈옷이 1965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여성들은 주로 육지 풍의 복장을 하고, 남성들은 양복이나 제복 차림이었다고 기록하였다.¹⁴⁵⁾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에 포함된 1960년대의 관덕정 사진(1962년 이전), 서문시장 주변에 열린 오일장 사진(1967년 7월, 10월), 중앙로 거리 사진(1960년대 말) 등에서 갈옷은 거

140) 제주대학교(2002), 『만능 흥정표선생 사진집 제주사람들의 삶』, 서울: (주)일원퍼앤씨.

141) 제주대학교(2002), 앞의 사진자료집

142) 제주대학교(2002), 앞의 사진자료집

143) 제주도(1996), 앞의 책

144) 김태보(1995), 앞의 논문

145)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2010), 앞의 책

의 관찰되지 않았다¹⁴⁶⁾. 1969년에 발행된 『남국의세시풍속』에서도¹⁴⁷⁾ 갈옷을 옛날 탐라 사람들이 척박한 생활을 개척하는데 기여한 향토적 민속공예품으로 묘사하였다. 특히 1965년에 발행된 『제주도 대한지지』에는 갈옷과 외국산 나일론 옷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온다.¹⁴⁸⁾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960년대 중반 이후 시내에서는 나일론 옷이 입혀지면서로 갈옷을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사례는 감소하고 주로 작업 상황에서만 입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960년대 제주 농업은 전근대적인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1960년대 초까지도 제주의 영농방식은 원시적이었고 생산성은 매우 낮았다.¹⁴⁹⁾ 당시에는 농림어업 중심의 1차산업 분야로의 취업률이 81%-86.5%에 달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였다.¹⁵⁰⁾ 1960년대의 이러한 농업 환경을 고려할 때 갈옷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만 착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60년대의 갈옷의 종류나 형태는 사진집에 등장하는 시각적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역사』¹⁵¹⁾ 『제주 100년』¹⁵²⁾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¹⁵³⁾에 포함된 1960년대 사진들 중에서 갈옷차림이 등장하는 사진들은 거의 모두 농사일, 도로와 포구의 공사, 어항과 어선 주변에서의 작업, 통조림 공장에서의 작업, 부두 방파제에서 곡식을 말리는 작업, 마소나 마차를 끄는 상황 등을 촬영한 것들이었다. 등짐을 지는 상황, 미역해경기를 맞아 바다로 나가는 작업 상황을 배경으로 촬영된 것들이었다. 이 사진들에 근거할 때 1960년대에 남성들이 착용한 갈옷 차림은 갈적삼과 갈중이를 입은 차림과 서양복 상의와 갈중이를 입은 차림 두 유형이었다. 1960년 사진에서 관찰된 마고자형 갈적삼과 갈중이는 1950년대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서양복 상의는 주로 남방 셔츠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1960년대 사진에 나타난 여성의 갈옷 차림 또한 갈적삼과 갈몸빼, 서양복 상의와 갈몸빼 두 유형이었다. 착용된 여성의 갈몸빼는 허리 아래로 주름이 풍성하게 잡히고, 엉덩이 품과 바지통도 넉넉하여 1950년대 형태와 유사하였다. 갈몸빼와 함께 착용된 서양복 상의는 주로 스웨터, 블라우스, 티셔츠 형태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갈중이 혹은 갈몸빼 위에 갈적삼을 착용한 경우 보다 서양복을 입은 경우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

한편, 1960년대 제주 갈옷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남녀 갈옷 모두를 갈중이로 통칭하여 부른다는 점이다. 이것은 1960년대와 그 이후 문헌이나 자료에 나타나는 특이한 점이다. 예컨대, 1960년대 신문에서는 ‘갈중이’란 용어가 단 1건만 관찰되었는데, 관찰된 1964년 조선일보 신문에 갈옷 차림으로 등장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이것은 이즈미 세이치가 1937년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각각이 착용하는 갈옷으로 裋褌男子袴衣·中衣(시삽남자고의·중의)와 裋褌女子袴衣(시삽여자고의)를 제시하고, 이 두 종류의 갈옷 형태를 다르게 구분한 점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남녀 갈옷을 통칭하여 갈중이로 부르게 된 것은 단속곳에 부리를 둔 갈굴중이가 사라지고 상의에도 갈옷을 거의 입지않게 됨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갈옷 중에서 가시성이 높은 것은 남자가 밭일이나 야외에

146)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1』, 도서출판 각, 2010.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2』, 도서출판 각, 2010.

147) 진성기(1969), 앞의 책

148) 우락기(1965), 『濟州道 大韓地誌 1』, 한국지리연구소.

149) 고려대 경제연구소, 지역경제발전패턴과 제주도의 산업개발전망, 1984, pp. 119-120.

150) 김태보(1995), 앞의 논문

151) 제주특별자치도(2010), 앞의 사진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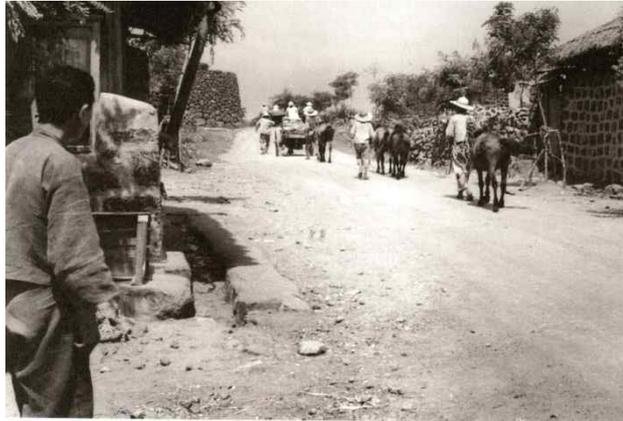
152) 제주도(1996), 앞의 사진자료집

153)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1),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사진자료집』, 제주여성사 자료총서.

서 일할 때 하의에 착용했던 갈증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외 여성이 하의로 착용하는 갈뭍 빼인 경우 일본 잔재라는 점에서 이 명칭에 대한 사용이 회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갈옷을 통칭하여 갈중이로 부르거나, 하의로 착용하는 갈옷 모두를 남녀 구분없이 갈중이로 부르거나, 갈뭍빼란 용어 대신 여자 갈중이로 부르는 사례는 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의 자료들에서도 계속 관찰된다. 예컨대, 제주민속복식에 관한 1972년 고부자의 논문에서도 남녀 공용 하의를 갈중이로 통칭하여 불렀다는 내용이 있으며, 여성이 하의로 착용하는 갈옷을 ‘갈중이(굴중이)’로 표기하고 있다.¹⁵⁴⁾ 1996년 제주민속박물관 관장이었던 진성기 또한 『濟州島 議定』에 발표한 글에서 원고 제목을 ‘갈중이’로 의뢰받았지만 이는 갈옷을 의미하므로 제목을 ‘갈옷’으로 변경한다고 서술하였다.¹⁵⁵⁾ 갈옷을 갈중이란 용어로 통칭하는 1990년대 신문기사¹⁵⁶⁾ 서적, 논문, 간행물에 실린 글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용어들의 혼용 사례,¹⁵⁷⁾ 박물관 유물 관리 카드에 여성용 갈옷을 갈중이로 표기하는 사례 모두 1960년대 부터 민간에서 나타난 이러한 용어 혼용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1950년대 제주 갈옷

	
<p>말과 마차의 행렬(1960년대)¹⁵⁸⁾ 갈적삼, 갈중이</p>	<p>추곡수매 (1960년대 초반)¹⁵⁹⁾ 갈적삼, 갈뭍빼</p>
	
<p>일주도로 공사(1969)¹⁶⁰⁾ 서양복, 갈뭍빼</p>	<p>서귀포 여항의 아침(1960년대)¹⁶¹⁾ 서양복, 갈뭍빼</p>

154) 고부자(1972), 앞의 책

155) 진성기(1996), 앞의 책

156) 장승홍, 조선일보 1991년 9월 3일; 허호준, 한겨레, 1994년 6월 7일

157) 진성기, 갈중이와 제주인의 지혜, 제주도 지방의정, 1996, 5, 354-356.

진성기, 고부자(1972), 앞의 논문

여덟살때 물에 곤두박아 海女(해녀) 修業(수업), 눈빛은 물색으로 뭍어져 이제 누물을흘리는 구실이 고작인 눈 한숨의헛바람을 두갈래로 찢는 송곳니 하나 굵은날씨를 찌릿찌릿 느낀다는 뼈마디만이 살아있는 그런 몸이 누더기 감물[갈중이]옷속에양상하게 담겨져있다. 그 「할매」의 어느 부분에 5백50가지의 민요가 담겨져있는지 모를 일이다.

- 이규태(1964), 조선일보 09월06일

2) 1960년대의 감물들이기

1960년대 제주 갈옷 문화에서 주목할 점은 갈옷 제작 방식에서의 변화와 감물들이는 대상의 변화이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는 감물들이는 옷이 입던 옷인지 새 옷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옷을 만든 후 감물을 들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1967년도 동아일보에 발표된 '제주 갈옷'에 대한 글에서 "이것은 아직 채 익지 않은 싱싱한 감을 방아에 짰어 생긴 물을 옷감에 들여서 고동색을 낸 것이다"라는 문장을 볼 수 있다.¹⁶²⁾ 이것은 적어도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옷감'에도 감물을 들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1969년에 발행된 『남국의 세시풍속』 문헌에는 일제강점기에서처럼 옷에 감물을 들여 갈옷을 만들었다고 서술되어 있다.¹⁶³⁾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미 만들어진 옷에 감물을 들여 갈옷을 만들거나, 옷감인 천에 감물을 들인 후 옷을 만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갈옷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1960년대에 제주에서 감물들이는 대상은 옷과 옷감 두 종류였음을 알 수 있다. 감물들이는 방법이나 절차는 일제강점기와 유사하였다.

『남국의 세시풍속』과 1967년 동아일보에 실린 '제주 갈옷'에 관한 글에 따르면, 감물들이기는 6월과 7월 사이에 익지 않는 '싱싱한 생감'을 따서 감물을 만들고, 감물에 옷이나 옷감을 담가 물들였으며, 감물에 적셨다가 햇볕에 말렸다가 다시 맹물에 적시고 햇볕에 건조시키는 반복 과정을 통해 발색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1967년 동아일보에 실린 글에서 "물에 담갔다가 또 말리고 해서 몇 번 거듭해가면 그 색이 고동색으로 짙어간다. 천은 광목이나 무명이 많이 쓰인다."라는 문장을 볼 때, 감물에 담그는 옷감은 거의 광목이나 무명이었으며, 감물들이는 후 옷이나 옷감에 발색되는 색상은 고동색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까지 감물들이는 옷의 색상은 적토색 혹은 붉은 갈색으로 갈색에서 드러나는 '붉은' 기미가 강조된 것과는 약간 다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감물들이는 색상이 적갈색이 아니고 고동색인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용어의 차이로 보인다. 즉 1960대 감물들이는 옷이 고동색인 것은 감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감의 종류나 감물에 혼합하는 다른 천연염료의 영향은 아니다.

특히, 진성기는 1969년에 발행된 『남국의 세시풍속』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자료들과는 달리 감물들이는 색상과 재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즉 원래 감물들이는 색상은 처음에는 붉은 기운이 강하고 재질은 풀떡인 것처럼 뻗뻗하지만 입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색상은 점차

158) 제주특별자치도(2010), 앞의 사진자료집
159)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1), 앞의 사진자료집
160) 제주특별자치도(2010), 앞의 사진자료집
161) 제주특별자치도(2010), 앞의 사진자료집
162) 문혜숙, 동아일보 1965년 9월 9일
163) 진성기(1969), 앞의 책

갈색이나 검은 기운이 도는 암갈색으로 변하고 재질 또한 부드러워진다고 하였다. 『남국의 세 시풍속』에는 제주에서 감물들이는 방법과 감물들이 옷의 장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진성기는 감물을 들인 후 옷에 색이 드러나도록 물에 적신 후 햇빛에 건조시키는 발색과정은 ‘햇볕에 바랜다’라고 표기하였다. 이것은 제주사람들이 사용하는 순우리말 표현으로 다른 천연염색과 달리 가열없이 햇볕으로 색상을 내는 감물염색만의 고유한 차별적 특징이다. 허부국은 제주만의 감물들이기 특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물들이 때 사용되는 용어를 제주사람들의 용어로 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¹⁶⁴⁾ 이 저서는 감물들이 옷의 장점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자료들에서 확인되었던 내용들과 일치한다. 이 내용들에 근거할 때, 1960년대 제주 사람들 또한 감물을 들이면 강도가 더 질겨지는 내구성, 땀이 묻어도 썩거나 땀냄새가 나지 않는 위생성, 비누 없이도 세탁이 가능하고, 감물을 들이면 뽀뽀하여 풀할 필요가 없는 세탁관리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몇 주일을 계속 입어도 더러운 줄 모르고, 먼지나 보릿가스랭이 따위의 거친 오물이 묻어도 쉬이 떨어지는 방오성으로 농사일이나 목축에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비를 맞아도 쉬이 젖지않아서 몸에 달라 붙지 않는 방수성과 물기가 묻어도 쉽게 떨어지는 발수성 등으로 이슬맺힌 밭에서 일하거나 물결에 젖는 어부들의 일에도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에도 제주 사람들은 감은 방부제 역할을 하여 땀이 묻어도 썩거나 땀냄새가 나지 않으며, 몇 주일을 계속 입어도 더러운 줄 모르고, 먼지나 보릿 가스랭이 따위의 거친 오물이 묻어도 쉬이 떨어지며, 비누없이도 세탁이 가능하고, 감물을 들이면 뽀뽀하여 풀할 필요가 없으므로 갈옷은 매우 위생적이고 관리가 용이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감물을 들이면 강도는 더 질기고, 비를 맞아도 몸에 달라붙지 않으며, 물기가 묻어도 쉽게 떨어져 이슬맺힌 밭에서 일하거나 물결에 젖는 어부들의 일에도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참으로 이 갈옷이야 말로 外國産 나이롱에 못지않는 勞農服으로서 질기고 簡便하고 經濟的이다”
- 우락기(1965), 『濟州道 大韓地誌 1』

나는 제주도에서 널리 애용되는 노동복(갈옷)을 권장하고 싶다. 이것은 아직 채 익지 않은 싱싱한 감을 방이에 쪼개 생김 물을 옷감에 들여서 고동색을 낸 것이다. 물에 담갔다가 또 말리고 해서 몇 번 거듭 해가면 그 색이 고동색으로 짙어간다. 천은 광목이나 무명이 많이 쓰인다. 이 옷은 ① 고동색이니 더러움이 안타고, ② 빨래할 적에 비누가 필요 없어 경제적이고, ③ 언제나 풀한 것처럼 고슬고슬해서 기분이 상쾌하다. 이 옷은 땀 흘려 노동하는 분이면 한번 애용해 볼 만하다.

- 문혜숙, 동아일보 1967년 1월 4일

요약하면, 196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문화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갈중이와 갈몸뼈 위에 갈적삼이 아닌 서양복을 착용하는 갈옷 차림새이다. 이러한 갈옷 차림은 1960년대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제주에서 나일론이나 화학섬유의 옷들이 대중화됨에 따라 전통적 이미지가 강하고 활동에 불편한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 착용이 감소하는 대신 서양복이 갈적삼을 대체한 것이다. 반면,

164) 허부국, 박지혜(2013), 앞의 책

갈증이와 갈몸빼는 노동이나 활동에 편리하기 때문에 1960년대에서도 계속 착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주로 착용되는 갈옷 하의의 활동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갈증이와 갈몸빼의 바지 통이 좁아지고, 갈몸빼의 발목 부분은 고무줄로 오므려지는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던 점도 1960년대 갈옷의 특징이다. 이렇게 하의 중심으로 갈옷이 착용됨에 따라 민간에서는 가시성이 높은 갈옷인 ‘갈증이’ 이름으로 갈옷을 통칭하여 부르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옷대신 옷감에 감물을 들인 후 갈옷을 제작하는 방식이 등장한 점 또한 1960년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3. 197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1) 1970년대의 갈옷 착용 현황

1970년대에 제주는 이전에 구축한 경제기반 시설을 토대로 양적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구조에서 질적인 변화를 이루며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¹⁶⁵⁾ 이 당시 제주는 관광주도형 지역개발전략을 추진하여 특급관광호텔과 쇼핑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관광지 면모를 갖추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 또한 증가하였다.¹⁶⁶⁾ 이 시기에 농림어업 중심의 1차산업 취업비율(72.2%)은 1960년대보다 15.9% 낮아졌으며, 제주는 전근대적인 농업 방식에서 벗어났다.¹⁶⁷⁾ 특히, 1970년대는 모든 국토의 산업화, 모든 일손의 생산화, 모든 농민의 기술화를 목표로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농촌 현대화가 추진된 시기이다.¹⁶⁸⁾ 제주 또한 이 시기에 초가지붕을 개량하고 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농가들이 자취를 감추었고¹⁶⁹⁾ 전통문화도 급격하게 상실되었다. 1970년대에 촬영된 사진, 신문기사, 논문 자료들에 근거할 때 제주 갈옷 또한 1970년대 중반까지는 입혀지다가 1970년대 후반으로 가서는 거의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판단된다.

1970년대 초반에 갈옷이 제주 사람들에게 입혀졌다는 사실은 1971년 8월부터 10월 약 3개월 동안 제주의 모습을 촬영한 이토 아비토(伊藤亞人) 교수의 사진집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¹⁷⁰⁾을 통해서 파악된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에 포함된 1970년대 사진들, 제주시 화북동에서 있었던 1970년대 새마을운동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¹⁷¹⁾ 1970년대의 제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블로그 사진들¹⁷²⁾에서도 갈옷 차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진들은 주로 당시 농촌 마을이었던 오라동, 아라동, 외도동, 화북동, 광령리, 애월읍 하거리, 남제주군에서 촬영된 것으로 갈옷은 주로 밭일, 솥굽기, 벽토 만들기, 묘지 정비, 방목, 도로 포장, 마을 길 정비, 정미소에서의 알곡 도정 등과 같이 노동이나 작업 상황에서 착용된 것이었다. 그리고 1975년 경향신문에 발표된 기사에서 “지난 71년 새마을 운동의 불길이 일어나자 넥타이를 매고 반등거리던 청년들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명주 바지를 입었던 마을 노인들은 갈옷(제주도 농촌의 작업복)으로

165) 김태보(1995), 앞의 책

166) 김태보(1995), 앞의 책

167) 강경숙, 김준표(2022), 앞의 논문

168) 경향신문 1973년 1월 6일

169) 김현돈(1997), 제주문화의 재창조, 제주리뷰, 3, 57-66.

170)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 제주: 경신인쇄사, 2019.

171) 현경희, 제주환경일보, 2023.2.20.

172) smile rock(2018.2.27.), 1970년대의 제주, 안장현의 문화유산과 사진 이야기, 네이버.

치장을 바꾸어 일터로 나섰다”라는 문장을 고려할 때¹⁷³⁾ 1970년대 초반까지도 노인들은 갈옷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2년 8월 제주시 5일장을 3회 방문하여 약 100명의 여성을 관찰한 고부자의 연구에 따르면, 30대와 40대 여성 거의 모두가 치마/블라우스를 착용했으며 갈옷 착용자는 매우 드물었다.¹⁷⁴⁾ 이것은 관찰 장소가 시장인 데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즉 공도에 나갈 때는 갈옷 착용을 금지했던 일제강점기의 의복규범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갈옷 차림이 관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¹⁷⁵⁾ 이것은 1970년 동아일보에 실린 글에서 멀리 외출할 때에는 하의로 착용한 갈옷 위에 흰색의 광목 치마나 베치마를 한겹 두르고 나갔다는 1970년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으로도 뒷받침된다.¹⁷⁶⁾ 이와 같이 1970년대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갈옷이 노인이나 작업 상황에서 착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갈옷이 제주민속복식으로 박물관에 전시되었다는 신문기사나¹⁷⁷⁾ 지역문화행사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볼 때,¹⁷⁸⁾ 1970년대 후반에 가서는 갈옷 착용이 더욱 감소하다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2) 1970년대의 남성 갈옷

본 연구에서 확보한 사진 자료들에 근거할 때 1970년대 남성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갈옷을 착용하였다. 즉 마고자형의 갈적삼과 갈중이를 착용하거나 갈중이에 서양복을 착용하였는데, 후자가 더 많았다. 상의와 하의 모두에 갈옷을 착용한 사례는 오라동 초가집 앞의 남성 노인과 광령리 돌담 앞의 노인들이 착용한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과 갈중이에서 볼 수 있다.¹⁷⁹⁾ 다른 하나는 하의에만 갈옷을 착용한 것이다. 1970년대에 촬영된 갈옷 차림 사진들 대부분에서 남성들은 하의에만 갈중이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상의에는 서양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노인들이 착용한 갈옷만 관찰되었고, 노동과 작업현장에서는 중장년은 하의에만 갈옷을 착용하였고, 청년들은 갈옷이 아닌 서양복 형태나 군복 형태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다.¹⁸⁰⁾ 군복에 감물을 들었는지 아닌지는 사진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1970년대부터 낡은 향토예비군복이나 학생 체육복 등에 감물을 들여 입었다는 고부자의 논문 내용과 유사한 맥락이다.

1970년대에 입혀졌던 갈중이 형태는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이전의 한복바지 형태의 갈중이와 유사하다. 즉 엉덩이 품과 바지통이 넉넉하고 헐렁하며, 발목까지의 길이였으며, 밑위 길이가 길었다. 그리고 바지를 허리에 끈으로 묶고 남은 윗부분을 아래로 접어서 착용하였으며, 발목 부분은 접어 올리것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드물지만 끈으로 묶은 것도 관찰되었다. 또 다른 갈중이는 한복바지보다 엉덩이 품과 바지통 품이 모두 좁았으며, 발목 부분은 묶음 없이 일자로

173) 강관영, 경향신문, 1975년 2월 10일

174) 고부자,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

175)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2010), 앞의 책

176) 정자환, 동아일보, 1970년, 7월, 31일

177) 동아일보 1978.01.06.)

178) 강관영, 경향신문, 1975년 2월 10일

박순자(2011), 한국과 일본의 감춤 제조와 염색법 및 염색물 변용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지역 사회생활과학회지, 22(1), 77-94.

179)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9), 앞의 책

180) 제주특별자치도(2010), 앞의 사진자료집; 제주도민 일보 2013년 2월 26일; smile rock(2018.2.27.),

내려진 형태였다. 그리고 1970년대 남자 노인이 착용한 갈옷에서는 V형태로 목이 파인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도 관찰되었다. 즉 길이는 허리까지 였고, 흰색 단추 여러 개로 좌우를 여미게 되어 있으며, 포켓이 2개 달린 형태였다. 따라서 1970년대 남성용 갈적삼과 갈중이는 1960년대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엉덩이 품과 바지통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들이 갈중이 위에 착용한 서양복 상의는 남방셔츠, 티셔츠, 스웨터 등이었다.

3) 1970년대의 여성 갈옷

1970년대 여성들의 갈옷 차림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갈적삼과 갈중이를 착용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갈몸빼에 서양복을 착용한 것으로, 후자가 더 많았다. 즉 1970년대 촬영된 사진들 대부분에서 여성은 하의에만 갈몸빼를 착용하고 있었고, 상의에는 서양복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1972년 당시에는 갈몸빼를 주로 착용했다는 고부자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¹⁸¹⁾ 또한 허벅지고 물길러 가거나 이웃집에 떡반 돌리러 갈 때와 같은 동네의 일상 생활에서도 활동에 편리한 바지 형태의 갈옷만 착용하고 상의에는 갈옷 대신 얇은 스웨터 하나 입었다는 1970년 동아일보 기사로도 뒷받침된다.¹⁸²⁾ 멀리 외출할 때에는 하의로 착용한 갈옷 위에 흰색의 광목 치나나 베치마를 한겹 두르고 나갔다는 반면, 1970년대 사진들에서 여성이 갈적삼을 착용한 사진은 찾아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1970년대에 여성이 갈적삼과 갈몸빼를 착용하였다는 사실은 1970년 동아일보에 발표된 제주 해녀에 대한 글에서 확인된다. 즉 “흙감둥이가 된 『몸빼』와 땀진 감물적삼을 툭툭 털고 김매던 조밭에서 보리밭으로 소리친다”라는 문장이 있는 점으로 보아¹⁸³⁾ 드물지만 1970년대에도 갈적삼과 갈몸빼가 착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70년대 혹은 198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추측되는 단 하나의 사진에서 갈적삼과 갈몸빼 차림이 관찰되었다.¹⁸⁴⁾ 이 사진에서 보이는 갈적삼 형태는 1950년대까지 여성 갈옷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마고자 형태였다. 즉 깃이 없고, 목파임은 V형이었으며, 품은 넉넉하고 길이는 허리까지 내려왔다. 앞판에는 단추가 여러 개 달려서 좌우를 여미게 되어있으며, 좌우에 포켓이 2개 달린 형태이다. 이것은 남성의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과 유사하다. 1970년대 사진들에서 관찰된 갈몸빼는 허리 아래로는 주름이 잡히면서 바지통은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었고, 발목은 대부분 오므려져 있었다. 서양복 상의들은 대부분 허리 아래로 내려와서 갈몸빼의 허리 부분은 잘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갈몸빼의 실루엣에 근거할 때, 허리에 고무줄을 넣은 것도 자주 관찰되었다. 으며, 허리에 넓은 단을 붙이고 끈으로 메는 형태의 갈몸빼는 관찰되지 않았다. 여성들이 갈몸빼 위에 착용하였던 서양복 상의는 주로 스웨터와 블라우스 유형이었다.

181) 고부자(1972), 앞의 논문

182) 정자환, 동아일보 1970년 7월 31일

183) 동아일보 1970년 7월 1일

184) 제주학아카데미 아카이브에 있는 서재철 사진—동일한 사진인데 1970년대와 1980년대 생산 ?

185)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 제주: 경신인쇄사, 2019.

186)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9), 앞의 사진자료집

187)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9), 앞의 사진자료집

188)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온라인 전시관

189) 진기철, 미디어 제주, 2005, 8.30

〈표 5〉 1970년대 제주 갈옷

		
<p>오라동 (1971년)185) 마고자형 갈적삼, 갈중이</p>	<p>광령리 (1971년)186) 마고자형 갈적삼</p>	<p>아라동 묘지정비(1971년)187) 셔츠, 갈중이</p>
		
<p>도로정비 새마을운동전경(1972년 제주도)188) 블라우스, 갈몸빼</p>		<p>이삿짐신고 이사(1970년대)189) 점퍼, 갈몸빼</p>

이와 같이 서양복이 남녀 모두의 갈적삼을 대체하게 된 것은 1970년대에 나일론 옷이 전국적으로 대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후반부터는 블라우스나 스웨터의 소재인 폴리에스테르, 데토론, 아크릴 등 다양한 합성섬유 또한 국산화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¹⁹⁰⁾ 특히, 국산 나일론의 1970년 생산량은 1963년에 비해 207배나 증가하였다. 나일론 옷을 비롯한 다양한 합성섬유 옷의 증가는 1970년대에 제주 갈옷의 쇠퇴를 가속화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80대 후반이거나 90대에 속하는 여성 노인분들이 “나일론 옷이 나오면선 안입게 되었다”, “나일론이 보급되면서 힘들게 감물로 염색할 필요가 없었다”, “좋은 옷들이 많이 생기므로 안입게 되었다” 라고 응답한 내용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¹⁹¹⁾

190) 허재희, 한국섬유산업의 발달과 한국여성 의상의 변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191) 허복구, 박지혜(2013), 앞의 책

집은 소금물, 강한 햇볕, 드러내놓은 살결, 보릿짚 냄새나는 황톳불그리고 무섭게 몰아치는 폭도. 이것이 곧 해녀들의 생활조건의 전부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대개 많은 수의자녀들이있다. 김매야할 감자밭이 있고, 약뿌려야할 굴밭이 있고, 밭지어야할 가정이있다. 이 세상에서 일을 가장많이하는 여성, 그것은 한국 제주도해촌의 해녀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흙감둥이가 된 『몸배』와땀전 감물적삼을 툭툭 털고 김매던 조밭에서 보리밭으로 소리친다.¹⁹²⁾

- 동아일보, 1970년 7월 1일

옷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무명에 감물을 들인 『갈옷』 한가지. 밭에 갈때는 물론 허벅(물동이)을 지고 물을 길러 갈때나 이웃집에 떡반을 돌리러 갈 때나 동네 생활은 거의 이 갈옷 하나로 통용된다. 땀잘 났아들이고 더러움 안타고 질긴 만능 의상이다. 위에는 얇은 쉼터 한 개. 만일 조금 멀리 인사 차례 가야할 때면 이 갈옷 위에 베치마나 광목 치마를 한겹 두르고 나르면 된다. 혹 동네 사람이 흰 옷을 입은 것이 보이면 으레 인사가 “외방 감수까?” (나들이 가십니까?)이다. - 중략 - 평균 오~육 가족을 가진 해녀가 월 평균 주식비는 삼천사백원꼴. 부식비가 일천사백원이며 피복비는 칠백십원이다.¹⁹³⁾

- 정자환 동아일보 1970년 7월 31일

지난 71년 새마을 운동의 불길이 일어나자 벵타이를 매고 빈둥거리던 청년들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명주 바지를 입었던 마을 노인들은 갈옷(제주도 농촌의 작업복)으로 치장을 바꾸어 일터로 나섰다.¹⁹⁴⁾

- 강관영, 경향신문 1975년 2월 10일

4) 1970년대의 감물들이기

1970년대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들이기는 1960년대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1972년에 발표된 고부자의 논문에 따르면, 감물들이는 시기는 7월과 8월 사이였으며, 감물은 만드는 원료는 풋감이었고, 감물들이는 절차는 감을 따서 짓이기고(부수기), 짓이기는 과정에서 나온 감물에 옷을 적셔 감물을 들인 후(치대기), 햇볕에 말리고 다시 물을 적시는 과정을 반복하였다(바래기). 그러나 1970년대 감물들이기에는 몇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하나는 시골에서는 보통 갈옷을 만드는데 쓸 용도로 1-2개의 풋감 나무를 심어서 자급자족 하였던 과거와 달리 1970년대에는 풋감을 시장에서 구매해서 감물들이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⁹⁵⁾ 이것은 1960년대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못했던 점이다. 또 하나는 1970년대 초반에는 집에서 벵틀로 짠 무명으로 만든 옷에 감물을 들인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구매한 무명 천으로 옷을 만든 후 감물을 들여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수 있다.¹⁹⁶⁾ 그러나 1974년 조선일보에 등장하는 “무명에 풋감을 뺀 갈색 물을 들인 『갈옷』은 땀이 잘베고” 라는 문장을 볼 때,¹⁹⁷⁾ 1970년대에는 옷뿐만 아니라 옷감에도 물을 들여 갈옷을 제작하는 것이 더 대중화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옷에 감물을 들일 때 보다 천에 감물을 들일 때 염색 균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얼룩없이 골고루 감물들이 갈옷을 제

192) 동아일보, 1970년 7월 1일

193) 정자환, 동아일보 1970년 7월 31일

194) 강관영, 경향신문 1975년 2월 10일

195)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9), 앞의 사진자료집

196) 고부자(1972), 앞의 논문

197) 유장흥, 이동탁, 조선일보(1974.07.12.)

작하는 데는 천에 염색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 자료들에서는 관찰되지 못했던 몇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고부자의 1972년 논문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제주에서 감물들이는 데 사용하는 풋감은 씨가 많고, 크기는 지름이 약 3-4 센티미터 정도이며, 감물들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는 남도구리와 덩드렁 막개라는 점이다. 그리고 옷에 감물을 들일 때는 감을 짓이길 때 나오는 감껍질도 옷 사이 사이에 넣어서 주무른 후 털어낸다는 점과 감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섞어가면서 옷이 완전히 젖게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바래는 단계에 대한 설명이 많이 추가되었다. 즉 옷을 널어서 말리는 장소로 멍석, 지붕위, 평평한 돌, 잔디 위 등이 가능하다는 점, 널때는 옷의 모양을 반드시 하고, 마르는 과정에서 옷의 앞과 뒤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점, 여름 직사광선에서는 약 10일 정도 건조시킨다는 점,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장마가 계속되거나 날이 습하면 색이 죽고 풀먹인 효과가 낫다는 점이다. 감물들이는 옷의 색상은 황토색이었고, 재질은 풀먹인 옷처럼 뻣뻣하였으며, 1970년대에도 제주 사람들은 갈옷이 땀에 강하고 더러움을 안타고 질긴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1969년 진성기가 『남국의 세시풍속』에서 제시했던 갈옷의 장점들이 고부자의 논문에서는 위생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시간 단축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그 내용이 재차 강조된 점을 볼 때,¹⁹⁸⁾ 1970년대에도 감물들이는 옷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의식주 생활에는 큰 차이가 없다. 모두가 조, 보리밭을 먹고 제주도 특유의 『갈옷』을 입고 밭일을 한다. 무명에 풋감을 뿜아 갈색 물을 들인 『갈옷』은 땀이 잘베고 때가 잘 안타 토박이 주민들이면 모두가 즐겨입는 작업복.

- 유장홍. 이동탁, 조선일보 197년. 7월 12일

요약하면,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하의에만 갈옷을 착용하였지만 그 양상은 1970년대에 와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갈중이와 갈몸빼도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는 마고자 형태의 길이가 긴 갈적삼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입혀졌으며, 갈몸빼 허리에 고무줄을 넣는 것이 대중화되었다. 남성 갈옷은 1960년대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천에 감물들이는 것은 1960년대보다 1970년대에 와서 더욱 대중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감물들이는 풋감이나 옷감을 자급자족으로 얻는 것 이외에 시장에서 구매할 점도 주목할 만하다.

4. 198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제주는 1980년대에 양적, 질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취업 구조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1986년 농림어업으로의 취업 비율은 58.2%로 10년 전 보다 20%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 중심의 3차산업 취업 비율은 38.7%로 10년 전 보다 22.5% 증가하였다.¹⁹⁹⁾ 또한 1980년대의 제주 농업은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농업 특성을 보였고²⁰⁰⁾ 관광산업은 국민의 여가 수요를 수용

198) 고부재(1972), 앞의 논문

199) 김태보(1995), 앞의 논문; 김태보(1991), 앞의 논문

할만한 능력을 갖추었다.²⁰¹⁾ 1986년 연간 제주 방문객은 내국인 기준 약 149만2천명으로 10년 전보다 110만명 이상이 증가하였다²⁰²⁾. 이와같이 농림어업 분야의 종사자 감소, 관광서비스 분야의 종사자 증가,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은 농부와 어부들의 노동복이었던 갈옷의 사용 상황을 축소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제주지역경제의 성장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와 도심지의 인구 집중, 제주도민의 1인당 소득수준의 향상,²⁰³⁾ 과잉 생산에 따른 나일론 옷의 대중화와 전국적 보급,²⁰⁴⁾ 여러 가지 합성섬유를 소재로하는 의복의 다양화와 대중유행 등은 1980년대 제주도민의 의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에 착용된 갈옷이나 감물들이기에 대한 사진이나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980년대 신문들에서 검색된 감물들이기에 관한 글은 1건이었으며, 갈옷에 관한 글은 3건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제주민속박물관 개관이나 단국대 민속박물관 세미나, 제주민속의 멋 서적에 대한 홍보 기사였다. 따라서 1980년대에는 직접 만들어 입는 갈옷이나 집집마다 행해지는 감물들이기 문화는 제주에서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2012년에 실시한 제주지역 소재의 73개 천연염색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서²⁰⁵⁾ 1980년대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갈옷 업체가 6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개인이 자급자족하여 만들어 입던 갈옷이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어 판매되는 상품화된 갈옷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자 제주 갈옷이 현대인에게 생활양식에 맞게 소비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가치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980년대는 개인이 자급자족하여 제작하는 갈옷은 사라지고 전문가가 제작하는 상품화된 갈옷이 등장하는 과도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5. 1990년대 제주의 갈옷과 감물들이기

1) 상품화된 갈옷의 등장과 증가

1990년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시기로 제주의 농산물과 관광 서비스 시장이 확대 개방된 시기이다.²⁰⁶⁾ 1980년대에 비해 1차산업과 3차산업으로의 취업 비율이 26.9% 감소하고 28.5% 증가함에 따라 두 산업으로의 취업 비율은 각각 41.7%와 54.6%로 역전되어²⁰⁷⁾ 제주에서의 농림어업 종사자는 더욱 감소하였다. 반면, 1990년 제주 방문객(3164천명)은 1986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며, 관광수입(431,945백만원)은 약 3배 증가하여 관광객 시장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졌다.²⁰⁸⁾ 또한, 1990년대에는 86서울아시

200) 김태보(1995), 앞의 논문

201) 김태보(1995), 앞의 논문

202) 송준영(2022), 1960-1980년대 제주도 관광이미지에 대한 서설적 연구-관광사진첩 속 시각이미지 변화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58, 343-372.

203) 김태보(1995), 앞의 논문; 강경숙, 김준표(2022), 앞의 논문

204) 홍병숙, 정미경(1996), 나일론이 의생활 및 섬유산업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945년부터 1970년을 중심으로-, 복식, 28, 31-46.

205)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2012), 제주 천연염색산업 실태조사 및 디렉토리, 연구용역보 고서.

206) 김태보(1995), 앞의 논문

207) 강경숙, 김준표(2022), 앞의 논문

208) 김태보(1995), 앞의 논문

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의 국제 행사를 계기로 전통문화의 세계화²⁰⁹⁾와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었으며²¹⁰⁾ 이 과정에서 한국전통문화의 상품화는²¹¹⁾ 물론 지역 문화의 활성화²¹²⁾ 및 향토문화의 상품화가 활성화되었다.

1990년대의 갈옷 상품화는 생활개선회와 생산업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생활개선회의 갈옷 상품화는 1970년대까지 갈옷 착용이 많았던 제주 농가의 소득 증대 일환으로도 추진되었다. 처음에는 마을 노인들이 갈옷 제작을 통해 가계소득을 올리는 부업 형태로 이루어졌으며²¹³⁾ 그 후 남제주군 생활개선회²¹⁴⁾,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생활개선회²¹⁵⁾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생태환경, 에콜로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익창출 목적의 기업들도 증가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73개 업체들 중 약 19개 업체가 1990년대에 설립되었는데,²¹⁶⁾ 이것은 1980년대 보다 2배 더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 부터는 제주 고유의 노동복인 갈옷의 상품화,²¹⁷⁾ 서울 브랜딩 백화점의 제주 여름갈옷 기획전,²¹⁸⁾ 신구범 제주 도지사의 향토 특산물전에서의 갈옷 판촉 활동,²¹⁹⁾ 서울 인사동 소재의 제주 갈옷 전문점 (주)복데강²²⁰⁾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 갈옷에 대한 유통과 판매촉진이 도내는 물론 도외에서도 이루어졌다.

2)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과 갈천 제품의 종류

1990년대는 전국적으로 약 10개 정도에 불과했던 생활한복 업체가 150여개로 증가할 정도로 생활한복이 대중화되던 시기이다.²²¹⁾ 제주 갈옷도 90년대의 이러한 시장 동향에 발맞추어 거의 대부분이 생활한복 스타일로 상품화되었다. 이것은 실용성을 강조한 우리옷 추석빔,²²²⁾ 추석때 입을 개량 한복 전시 판매²²³⁾ 감물염색한 배넛저고리 응용 스타일의 제주 갈옷,²²⁴⁾ 감물 옷을 접할 수 있는 인사동 생활한복점,²²⁵⁾ 감물로 천연염색한 옷²²⁶⁾ 등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1999년 조사에서도 제주지역 여성 응답자들 중 과반수 정도가 남성용 개량한복, 여성용 개량한복, 여성용 원피스, 아동용 개량한복에 대한 구매의사가 높았

209) 경향신문 1993년 1월 21일; 조선일보 1994년 1월 1일; 경향신문 1994년 2월 20일; 동아일보 1996년 1월 6일; 경향신문 1996년 8월 8일

210) 매일경제 1998년 6월 3일

211) 경향신문 1997년 1월 16일; 동아일보 1997년 11월 11일

212) 한겨레 1995년 7월 18일; 한겨레 1996년 9월 14일; 한겨레 1997년 10월 2일

213) 장승호, 조선일보, 1991, 09.03

214) 임재영, 1996년 9월 7일 동아일보

215) 강홍균, 경향신문, 1997년 4월 25일

216)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2012),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217) 임재영, 1996년 9월 7일 동아일보

218) 정상영, 한겨레, 1996년 3월 28일

219) 경향신문 1998년 1월 3일

220) 어수용, 조선일보, 1999년 3월 11일; 임재영, 1996년 9월 7일 동아일보; 정상영, 한겨레, 1996년 3월 28일; 한겨레 1998년 1월 3일;

221) 유인경, 경향신문 1998년 9월 25일

222) 이선주, 조선일보 1994년 9월 16일

223) 정상영, 한겨레, 1994년 9월 6일

224) 경향신문, 1996년 5월 27일

225) 박종인, 조선일보 1998년 9월 25일

226) 윤경은, 동아일보, 1998년 6월 4일

다.²²⁷⁾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1990년대에는 생활한복 형태의 갈옷이 주로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의 부업화 상품들 중에는 일부 남성용 갈적삼과 갈중이 및 여성용 갈적삼과 갈중이도 있었다.²²⁸⁾ 그러나 1990년대 상품화된 갈옷들 대부분은 전통적 이미지(예: 매듭 단추, 저고리의 깃이나 썸)를 반영하기는 하였지만 소매는 현대의 생활양식에 맞추어 서양복 제작 방식을 적용한 것들이었다.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들 중에는 현대복식도 있었다. 생활개선연구회에서는 조끼와 반바지를 무명과 삼베에 감물들이인 갈천으로 제작하거나²²⁹⁾ 남제주군 대정읍 대정농공단지에서 설립한 의류업체 (주)봄데강에서는 감물들이인 천으로 전통 해녀복 스타일의 원피스와 남녀 정장 승마복을 제작하여 갈옷 패션쇼를 선보였다.²³⁰⁾ 또한 감물들이인 갈천을 재료로 활용한 모자, 가방, 테이블 세트, 자동차 좌석 등받이 등과 같은 패션잡화나 생활용품이 상품화되었다.²³¹⁾ 이것은 1990년대부터는 감물들이인 갈천의 쓰임새가 의복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새롭게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3) 1990년대의 감물들이기 변화 특성

1990년대의 감물들이기는 절차나 방법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1970년대와 같이 생감을 따서 감물을 내고 원단에 감물을 들인 후 햇볕에 건조시키고 물에 적시기를 반복하여 바래기 과정을 거쳤다. 단지, 주목할 것은 1970년대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갈천 염색이 대중화되어 상품화된 모든 제품이 감물들이인 갈천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즉 1990년대에는 옷에 물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1990년대 행해진 감물들이기에서의 큰 변화는 소재의 확대, 감물들이는 도구의 기계화, 감물의 저온 저장과 상품화 등이다. 우선 1990년대에는 면, 마, 모시 등의 천연소재 이외에 인견과 같은 재생섬유 직물에도 감물을 들였다. 감물들이인 다양한 갈천은 갈옷은 물론 패션잡화나 생활용품의 제작에까지 활용되어 그 쓰임새를 확대하였다.²³²⁾

감물들이기 때 사용하는 도구가 변화된 점도 1990년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1970년대까지는 풋감을 으개는데 남도구리와 텅드렁 막개가 이용되었다면 1990년대에는 믹서기, 커터기, 착즙기 등의 기계가 활용되었다. 이것은 기계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과거의 도구나 손염색을 대체한 것도 있지만 1990년대의 감물들이기가 갈옷 생산업체에 의해 대량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계화에 동반되어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감물 특성이다. 1970년대에는 감껍질이 섞인 감물을 이용하였다면 1990년대에는 기계로 분리된 순수 감물만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감껍질을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 시간과 노동력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감물에 섞인 감껍질 때문에 나타나는 얼룩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감물들이기가 대량화됨에 따라 1990년대에는 풋감의 저장성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하 5도 정도로 저온 저장된 감물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감물의 저온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1990년대 감물들이기는 여름(7월-8월)을 지나 9월과

227) 홍희숙, 제주 갈옷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 중소기업청 연구과제 (1999.05.01.-2000.4.31.)

228) 장승홍, 조선일보, 1991년 9월 3일

229) 허호준, 한겨레, 1994년 6월 7일

230) 임재영, 동아일보, 1996년 9월 7일

231) 허호준, 한겨레, 1994년 6월 7일

232) 홍희숙(1999.05.01-2000.4.31), 앞의 연구과제

10월까지도 연장되었다. 특히, 저온 저장한 감물을 용기에 담아 거래하는 감물 상품화는 1990년대에 나타난 큰 변화이다.

4) 패션상품과 지역문화상품으로의 가치 전환

1999년에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여성들을 대상으로 제주 갈옷에 대한 인지도, 구매를 통한 상품화된 갈옷의 소비 경험과 향후 소비의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상품화된 갈옷에 대한 제주 도민과 제주 방문객의 수용 정도는 1999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조사에 참가한 402명의 제주지역 여성들 중 98%가 갈옷에 대해 알고 있지만 상품화된 갈옷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갈옷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 약 15% 정도였다.²³³⁾ 이것은 상의이든 하의이든 제주 사람들 대부분이 갈옷을 착용했던 과거의 양상과는 다른 점이다. 그리고 상품화된 갈옷이 제주지역 여성 모두에게 수용이 되지 못하고 상품화된 갈옷의 소비가 지연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의 낮은 활용도, 선호성이 낮은 스타일, 세련되지 못한 디자인과 디자인 다양성 부족, 제한된 색상과 소재, 현대복 아이템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²³⁴⁾ 이것은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은 제주 사람들 대부분이 착용하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하여 즐기는 선택적 기호품으로서의 특성이 강함을 시사한다. 즉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은 노동복으로 활용되었던 전통 갈옷과 달리 개인의 주관적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되는 패션상품으로 그 용도와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9년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갈옷을 알고 있는 제주지역 여성의 49.9%가 향후에도 갈옷이나 갈천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²³⁵⁾ 상품화된 갈옷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취향, 가치관에 따라 지속적인 소비 확대가 가능한 상품임을 시사한다.

한편, 제주를 방문한 여성 관광객들인 경우 약 2/3 정도의 응답자가 갈옷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약 17%의 관광객이 구매를 통해 갈옷을 소비한 경험이 있었으며, 갈옷을 인지하고 있는 제주 방문객 여성들 중 51.6%가 향후에도 갈옷이나 갈천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²³⁶⁾ 이것은 상품화된 갈옷이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갈옷에 뿌리를 둔 지역문화 상품이자 제주 방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관광기념품으로도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감물들이던 제주의 의생활 문화나 민속복식이 상품화된 갈옷을 통해 현대생활에 맞게 전승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1990년대는 상품화된 갈옷의 등장으로 제주의 전통 갈옷이 현대적 갈옷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의 가장 큰 특징은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개선회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업체들에 의해 상품화된 갈옷이라는 점이다. 1990

233) 홍희숙(2004), 제주지역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지역 문화상품 '갈옷' 패션이미지와 '갈옷' 구매행동, 제주도연구, 26, 223-255.

234) 홍희숙(2004), 앞의 논문

235) 홍희숙(2004), 앞의 논문

236) 홍희숙(2001), 추구혜택과 패션이미지가 제주지역 패션문화상품 갈옷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2), pp. 73-84. 홍희숙(2001), 앞의 논문

년대의 상품화된 갈옷은 한복과 서양복 특성을 접목시킨 생활한복 스타일이었으며,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서양복 형태로 상품화되었다. 상품화된 갈옷은 거의 모두 천연소재나 재생섬유 원단에 감물을 들인 갈천으로 제작되며, 이러한 갈천은 의류에 덧붙여 패션잡화와 생활용품의 재료로 까지 그 쓰임새를 확대하였다. 1990년대 감물들이기는 전문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계화된 도구의 사용으로 감껍질이 없는 감물과 저온 저장된 감물이 이용되었으며, 감물의 상품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대는 갈옷의 상품화를 통해 갈옷의 성격이 노동복에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가치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되는 패션상품이자 지역문화상품으로 전환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6. 2000년 이후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1) 갈옷 전문 생산업체의 증가와 감물염색 제품의 다양화

2000년 들어 제주의 농업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농가 규모와 농업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1990년 대비 농업 가가와 농업 인구의 수는 각각 16.6%, 43.1% 감소하였다.²³⁷⁾ 그러나 제주 갈옷 업체는 제주지역의 농가나 농업인구의 감소에 상관없이 2000년대에 더욱 증가하였다. 즉 감물염색 업체가 89%를 차지하는 제주지역 73개 천연염색 업체들 중 27개 업체가 2000년 부터 2005년 사이에 설립되었고, 21개 업체가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설립되었다.²³⁸⁾ 즉 2012년까지 48개 업체가 설립되어 19개 업체가 설립된 1990년대 보다 2배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제주의 농가와 농업 인구의 절대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갈옷 전문업체가 증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소비 지향에 따른 친환경 시장의 확대에 따른 현대적 수요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2001년 갈옷 전문업체와 제주공항의 갈옷 매장을 방문하여 관찰한 결과²³⁹⁾ 및 2003년²⁴⁰⁾, 2013년,²⁴¹⁾ 2015-2016년,²⁴²⁾ 2020-2023년²⁴³⁾에 갈옷 전문업체의 매장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갈옷 전문업체의 대표를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파악되었다.

2000년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우선 현대복식으로 상품화된 갈옷의 다양화와 고급화 및 갈천의 용도 확장이다. 2000년 이후 상품화된 갈옷은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적용된 원피스, 블라우스, 자켓, 셔츠, 조끼, 아동복 등이다. 특히, 2010년 이후 학계에서 이루어진 실험연구와 갈옷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검사를 통해 감물들이 '갈천' 원단의 항균성과 소취성 등

237)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보도자료, 통계로 본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구조 변화, 2017년 4월 3일

238)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2012),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239) 홍희숙, 제주 관광기념 의류상품 다양화를 위한 지역패션문화상품의 개발: 생활한복, 중소기업청 연구과제 (2021.5.1.-2002.4.31.).

240) 홍희숙(2003), 제주 갈옷과 감물염색,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 pp. 13-17.

241) 제주지역 갈옷 전문업체 매장 방문 및 홈페이지 조사

242) 홍희숙 외, 감물 가공처리 한지가죽 신소재를 활용한 글로벌 명품가방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과제 (2015.9.1.-2017.8.31.)

243) 홍희숙 외, ICT 및 Live Commerce 기반 제주천연염색산업 성장촉진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과제 (2020.6.1.-2023.5.31.)

의 가능성이 입증됨에 따라 상품화된 갈옷은 피부와 접촉하는 런닝, 티셔츠, 양말을 비롯하여 언더웨어 제품으로까지 그 용도를 확대하였다. 상품화된 언더웨어와 피부접촉 의류들은 2013년에 조사한 (주)몽생이나 농업회사법인(주)갈중이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처음 소개된 모자, 머플러, 스카프, 가방 등의 갈천제품 이외에 헤어밴드, 브로치, 이불, 침대 매트, 베게, 테이블 매트, 티코스터 등을 비롯하여 갈옷 입은 소녀, 해녀, 대장금, 곰돌이 인형으로까지 상품화되면서 갈천은 2000년 이후 패션잡화와 생활용품분만 아니라 패션악세서리, 침구, 실내장식 용품의 소재로까지 그 쓰임새를 더욱 확장하였다. 2000년 이후 나타난 변화들 중의 또 하나는 상품화된 갈옷의 소재와 문양 다양화이다.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에는 주로 면직물, 마직물, 인견 등이 적용되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감물들이기가 소창과 텐셀 원단에 까지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소금 뿌리기, 주름잡기, 흘치기 기법, 나염 프린팅을 적용한 문양 갈천을 상품화된 갈옷의 소재로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갈옷이 갖는 단일 색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품화된 갈옷의 디자인 다양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2000년 이후의 변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2000년 이후에는 (주)몽생이와 몇몇 업체들인 경우 갈천을 친환경 벽지의 소재로 용도를 확장하였다.

2) 2000년 이후 나타난 감물들이기의 변화 특성

2000년 이후의 감물들이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주의 전통 감물들이기를 응용한 감물복합염색의 등장과 적용이다. 2000대 중반부터 다른 천연염료로 이미 염색한 천을 감물로 다시 재염시키거나, 감물들이 갈천을 쪽, 쪽, 감태 등의 염액에 담가 재염시킨 원단을 상품화된 갈옷의 소재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감물복합염색은 감물을 들이는 대상을 미가공 원단뿐만 아니라 다른 천연염색 원단까지 확대한 것이거나, 감물들이기가 끝난 갈천에 또 다른 절차 하나를 부가한 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감물들이기를 응용한 또 하나의 감물염색 방법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감물복합염색이 활성화된 것은 기능성 강화와 색조 다양화 두 측면에서의 유의성 때문이다. 예컨대, 천연염색 원단에 감물을 들인 감물복합염색 원단인 경우 염색견뢰도, 항균성, 내구성이 향상될 수 있다.²⁴⁴⁾ 그리고 쪽/감물, 감태/감물, 쪽/감물 등과 같은 감물복합염색 원단으로 상품화된 갈옷에서는 전통 갈옷의 적토색과는 다른 초콜릿의 짙은 어두운 갈색, 검정 기미의 어두운 카키색, 푸른 기미의 떡갈색 등 다양한 색조가 얻어진다. 이것은 갈색이란 단일 색상에 제한된 감물염색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고, 감물복합염색에 사용하는 천연염료에 따라 원단의 색상이나 색조의 뉘앙스를 약간씩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감물복합염색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2000년 이후 나타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감물들이기 체험의 상품화와 대중화이다. 우선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화된 감물들이기 체험이 새로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지속가능성과 체험 교육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초등/중등 학교와 감물염색 업체의 상호협력에 의한 감물들이기 체험 학습, 제주지역의 공공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행사, 제주를 방문

244) 홍희숙, 신탐라 gift & 체험 프로젝트 사업: 건강기능성 패션상품 연구개발.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사업 (2005.7.1.-2006.6.30).

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물들이기 체험 프로그램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감물들이기가 주로 갈옷 전문업체에 제한되어 이루어졌다면 2000년 이후에는 제주도민과 타 지역 관광객들의 감물들이기 체험이 대중화되었다. 제주지역 신문들에 따르면,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은 주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 제주 추사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민속촌 등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감물들이기 체험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2002년부터²⁴⁵⁾ 제주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농가소득 향상의 하나로 감물들이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약 20년동안 매년 여름에 정기적으로 운영해온 이 프로그램인 경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하루 이틀 동안 1,000명 이상이 참가하면서 최근에는 축제형식으로까지 그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활개선회의 부업화를 통한 소득 증대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호 학습을 목적으로 감물들이기 체험이 마을 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2000년 이후에는 갈옷 생산업체이외에 일반인들에 의한 감물들이기가 대중화되었다.²⁴⁶⁾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 나타난 감물들이기 변화들 중의 하나는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의 발색과 감물염색의 반자동화이다. 즉 1990년대에 풋감을 부수고 으깨는 작업이 카터기나 착즙기 기계로 대체되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장마나 비와 같은 날씨 요인에 따라 방해 받는 발색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내 환경에서의 바래기가 추진되었다. 예컨대, (주)몽생이는 자연발색과 함께 유리온실을 이용하여 갈물들이는 천을 바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주)갈중이는 손으로 물들이던 과정을 반자동화된 염색 공정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요약하면 2000년 이후에 나타난 큰 변화는 감물복합염색의 등장과 활성화이다. 감물복합염색 원단으로 2000년 이후의 상품화된 갈옷은 색상과 색조가 다양화되는 한편 기능성 또한 강화되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큰 변화는 감물들이기의 상품화와 체험 대중화이다. 갈천에 적용된 문양염과 감물들이는 소재의 다양화도 2000년대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현대복식 형태의 갈옷이 1990년대 보다 더욱 다양화되고 고급화된 점을 비롯하여 감물들이는 갈천의 용도가 다양한 범주의 상품군으로 더욱 확장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245) 강재병, 제주일보, 2002년 8월 18일

246) 제주환경일보, 2014년 9월 28일; 농촌여성신문, 2012년 9월 3일;

제주시(2021, 5, 12), 제주시 삼도2동 지역 아동 및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갈옷 만들기 사랑나눔봉사 개최, 제주시, 출처

〈표 6〉 2000년 이후의 상품화된 제주 갈옷과 감물염색 제품

	
<p>생활한복과 현대복식(2001년) 제주공항과 제주갈옷업체매장</p>	<p>패션잡화와 침구 (2001년) 제주공항과 제주갈옷업체 매장</p>
	 <p>위용생이 진순금방 옥부쟁이 뽕피가 옥부쟁이 위갈중이 위갈중이 청수살롱 몰드러네 감빛쪽빛 초록당쟁이 태일리스티지</p>
<p>감물염색과 감물복합염색 제품 (2013년) 제주지역 갈옷업체 매장</p>	<p>감물염색과 감물복합염색 제품 (2021년) 제주천연염색기업지원사업</p>

IV. 요약 및 결론

제주 갈옷과 제주에서의 감물들이의 역사와 변천 양상을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들이기 문화와 감물들이 옷의 역사는 객관적으로 조선시대 후기 이전으로 볼 수 있으며, 약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다. 현재 우리가 부르는 '갈옷'이란 명칭 또한 적어도 일제강점기인 1931년 이전부터 92년 이상 사용되어 온 명칭이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제주 갈옷은 옷에 감물을 들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감물들이 옷이 갖는 내구성, 위생성, 내수성, 발수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농부복이나 농림어촌의 노동복 용도로 착용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갈옷은 남성이 착용하는 갈적삼과 갈중이(栲澁襦衣, 栲澁男子袴衣·中衣) 및 여성이 착용하는 갈적삼과 갈굴중이(栲澁襦衣, 栲澁女子袴衣)로 구분되었다.

1950년대 제주의 지역경제는 전통적인 농업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 제주 사람들의 갈옷 착용은 일상적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갈옷 상의인 갈적삼과 갈중이 혹은 갈몸빼 를 함께 착용하였다. 1960년대에는 나일론과 화학섬유의 옷이 대중화됨에 따라 서양복이 활동에 불편한 갈적

삼을 대체하여 갈옷 하의만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제주의 농업은 전근대적이어서 갈옷은 농부복과 노동복의 용도로 농어촌에서는 이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옷이외에 옷감에도 감물을 들여서 갈옷을 제작하였다. 1970년대에 와서는 자급자족하던 풋감이나 옷감을 구매하여 감물을 들이는가 하면 하의에만 갈옷을 착용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다가 1970년대 말에는 이 또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제주의 농업이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구조로 변화된 1980년대에는 제주에서의 갈옷 착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자급자족하던 갈옷이 상업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에는 상품화된 갈옷을 통해 제주 전역에서 다시 갈옷과 감물들이기 문화가 활성화되었다. 비록 갈옷의 착용 목적과 착용용도의 근간이 되었던 농림어업의 쇠퇴하여 노동복으로서의 갈옷의 용도는 사라졌지만 1990년대에 다시 등장한 상품화된 갈옷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되는 패션상품이자 타지역의 제주 방문객들에게도 소비되는 지역문화상품으로서 그 가치가 전환되었다.

1990년대 이후 갈옷 제작자는 개인에서 마을의 생활개선회나 전문 생산업체로 변화되어 전승되고 있으며, 갈옷 제작을 위해 감물들이는 대상은 옷에서 직물로 변화되었으며, 감물들이는 직물은 베, 마, 무명, 목면에서 인견, 텐셀 등으로 확대되었고, 감물들이는 갈천의 쓰임새는 의류를 넘어 패션잡화와 실내용품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갈옷 형태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추어 한국복식 토대의 전통적인 갈옷에서 서양복 형태의 현대적 갈옷으로 변화되었지만 제주 고유의 감물들이는 의류로 전승되고 있다. 갈옷 제작에 동반되는 감물들이기 절차는 전통사회에서와 큰 차이가 없지만 현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손염색이나 전통적 도구의 활용에서 기계화로 변화되었다. 기계화에 따른 감물들이기의 대량화로 감물의 저온 저장과 감물의 상품화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감물들이기와 스스로 하는 감물들이기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상품화된 감물들이기 체험 프로그램이나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도 전승되고 있다.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는 화산섬에 기인한 농토의 척박성과 사면이 바다인 생업 환경 및 목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제주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이 축적된 의생활 문화로서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또한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는 기술의 발전과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추어 현재까지 300년 이상 제주에서 전승되어온 향토문화이자 제주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문화이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흐름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친환경적 소비 가치의 중요성으로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의 가치가 더욱 주목 받으며 그 쓰임새 또한 더욱 확장되고 있다.